

2009年 2月
碩士學位論文

한국어와 중국어 분류사의
비교 연구

朝鮮大學校 大學院

國語國文學科

韓月梅

한국어와 중국어 분류사의
비교 연구

*A Comparative Study on Korean Classifiers with
Chinese Classifiers*

2009年 2月 25日

朝鮮大學校 大學院

國語國文學科

韓月梅

한국어와 중국어 분류사의 비교 연구

지도교수: 최재희

이 논문을 국어국문학과 석사학위신청 논문으로
제출함

2008년 10월

조선대학교 대학원

國語國文學科

韓月梅

韓月梅의 석사학위논문을 인준함

위원장	대학교 교수 _____
위원	대학교 교수 _____
위원	대학교 교수 _____

2008년 12월

조선대학교 대학원

목 차

ABSTRACT	iii
1. 서론	1
1.1 연구목적 및 연구방법	1
1.2 선행연구	2
2. 한국어와 중국어 분류사의 구조 특징	4
2.1 한국어와 중국어 분류사의 정의 및 유형	4
2.1.1 분류사의 정의	4
2.1.2 분류사의 유형	7
2.2 한국어와 중국어 분류사구의 구성방식	14
2.2.1 분류사구의 결합구조	14
2.2.2 분류사구의 중첩구조	18
2.2.3 분류사구의 문법기능	20
3. 한국어와 중국어 분류사의 의미와 용법	24
3.1 한국어의 한자어 분류사와 중국어의 분류사	24
3.1.1 개체분류사	24
3.1.2 집합분류사	49
3.1.3 도량형분류사	51
3.2 한국어의 고유어 분류사와 중국어의 분류사	58
3.2.1 개체분류사	58
3.2.2 집합분류사	68
3.2.3 도량형분류사	71
4. 결론	74
참고문헌	76

<표 목차>

<표 1> 유동준(1983)의 분류사 유형	8
<표 2> 채완(1982)의 분류사 유형	9
<표 3> 임동훈(1991)의 분류사 유형	9
<표 4> Sang-ryong Oh(1994)의 분류사 유형	10
<표 5> 劉月華(2002)의 분류사 유형	11
<표 6> 郭紹虞(1979)의 분류사 유형	11
<표 7> 呂叔湘(1996)의 분류사 유형	12
<표 8> 본 논문의 분류사 유형	13
<표 9> 한국어와 중국어 분류사구의 결합 유형	17
<표 10> 한국어와 중국어 분류사구의 중첩 유형	20
<표 11> 같은 의미로 쓰이는 분류사	55
<표 12> 다른 의미로 쓰이는 분류사	56
<표 13> 한국어에서 중국어보다 더 넓은 의미로 쓰이는 분류사	57
<표 14> 중국어에서 한국어보다 더 넓은 의미로 쓰이는 분류사	57

ABSTRACT

A Comparative Study on Korean Classifiers with Chinese Classifiers

by HanYueMei

Both South Korea and China have a long history, and they have a deep relationship through the ways of economy, polite and culture. Two countries not only have a long and close communications on many aspects, such as many grammar and conversation books concerning Chinese and Korean have been published, but also exist a lot of the same types of Chinese characters between their words by reason of the uniform cultural area they belong to, but we have seldom found paper comparing the two languages indeed. Therefore the main thesis will study classifiers from which appear their languages.

In Korean, there are many classifiers have been found as certain units which counted people or things or the number of times of movements. So is Chinese. Both of two languages' expressions of quantifier are described by classifiers. At this point, The Chinese learners who study Korean will understand the meaning of classifiers easily. The same way, the Korean learners who study Chinese will get the similar effects. However, the learners who study Korean or Chinese will meet difficulties when they study classifiers since the same forms of their classifiers have the different meanings and usages. So, the main article tends to research the comparison of the two languages' classifiers of meanings and usages.

As following above, the essay will classify Korean classifiers as Chinese characters and native tongues, compare Korean classifiers of meanings and usages with Chinese which have the same forms each other, find the part of

Chinese classifiers which correspond with Korean native tongues and compare their meanings and usages. After the first study, when compare Korean classifiers with Chinese, it will explain the classifiers of them which have the same meanings or different, and will describe the meanings of Chinese classifiers which be used more than Korean or the meanings of Korean classifiers which be used more than Chinese.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hat try to help the second language learners.

1. 서론

1.1 연구 목적 및 방법

한국어와 중국어의 수량표현은 각각 분류사와 양사를 통하여 실현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한국어와 중국어의 분류사와 양사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설명하려고 한다.

서태룡(1998: 203-217)이 편저한 《어법연구와 자료》에는 상용 한국어 분류사로 모두 366개가 등록되어 있다. 그 중 고유어 분류사는 194개에 달하고, 한자어 분류사는 172개에 달한다. 한국어의 ‘선생님 한 분’에서 ‘분’은 고유어 분류사이고, ‘배 한 척’, ‘술 한 잔’에서 ‘척·잔’은 한자어 분류사이고, 사람이나 사물의 단위를 표시하는 말로, 수효나 분량 따위의 단위를 나타낸다.

한편, 郭先珍(1987: 10)이 편저한 《현대중국어분류사사전》에서는 현대 중국어에서 사용되는 분류사가 500-600개 정도로 추산된다고 했다. 중국어에서 분류사가 이렇게 많이 사용되는 이유는 단음절 어휘가 풍부하고 동음이의어가 많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예컨대 ‘話(화)’와 ‘畫(화)’는 동음이의어로, 단음절로 쓸 때는 의미가 애매하여 명사 앞에 분류사 ‘句(一句話)’, ‘幅(一幅畫)’를 넣어서 수식하는 사물이나 현상을 명확하게 구분하였다.

한국어는 한자를 차용하여 언어생활을 해왔으므로 동일한 형태를 가진 분류사가 많이 존재한다. 한국어에는 사람, 사물이나 동작의 횟수를 세는 단위로 나타내는 분류사가 있고, 중국어에도 이와 같은 기능을 하는 분류사¹⁾가 있다. 이런 점에서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언어 환경은 한국어의 분류사를 학습하는 데 유리하다. 마찬가지로 한국인 중국어 학습자들도 중국어의 분류사를 학습하는 데 유리하다. 하지만 동일한 형태의 분류사일지라도 의미와 용법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로 인해 외국인 학습자들이 분류사를 배울 때 많은 혼동이 일어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일상생활에 자주 쓰이는 두 언어의 분류사의 의미와 용법을 중점적으로 비교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는 한국어의 분류사를 한자어와 고유어로 나누고, 같은 형태를 가진

1) 본 논문에서는 두 언어의 분류사를 비교할 때 중국어의 양사를 모두 ‘분류사’라 통칭하고 연구를 진행하겠다.

한자어 분류사와 중국어의 분류사의 의미와 용법을 비교·설명하고, 한국어의 고유어 분류사에 대응되는 중국어의 분류사를 찾고 그들의 의미와 용법을 살펴보겠다. 이 연구는 한국어나 중국어를 외국어 혹은 제2언어로 배우는 학습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함에 목적이 있다.

1.2 선행연구

최근 들어, 분류사의 속성에 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우선, 한국어의 분류사에 대한 연구로는 유동준(1983), 채완(1990), 오상룡(1995), 곽추문(1995) 등이 분류사의 의미범주화 기능에 대해 논의하였고, 채완(1982, 1983)은 분류사와 수량사 사이의 선택 관계에 따라 수량사구의 구성 형식을 구분하였으며, 한송화(1999)는 명사와 수량사, 분류사가 이루는 구성체를 유형화하고 이들의 통사·의미적인 차이를 분석하였다. 중국어의 분류사에 대한 연구로 이근호(1984)는 분류사의 의미와 용법을 분석하였고, 허벽(1987)은 분류사의 명칭과 정의를 분석하였고, 關湘(1998)은 중국어 분류사의 특징과 응용을 분석하였다.

최근에는 한국어와 중국어 분류사에 대한 비교 연구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바 분류사에 대한 정의에서부터 분류방법, 어순, 결합관계, 의미, 용법 등에 관한 비교연구도 이루어져 왔다. 송문려(1998)는 중국어 분류사를 연구 대상으로 한국어 분류사와 비교·연구하였고, 이은경(2000)은 사람들에게 인지(認知)되는 의미-지각 속성에 따라 분류사와 결합되는 대상의 의미범주유형을 제시하고, 거기에 따른 분류사를 분류하여 그 의미와 쓰임을 대조·연구하였으며, 한경희(2002)는 한국과 중국 두 언어의 분류사의 어원과 ‘명사+분류사’의 결합 관계에 대하여 분석했다. 그리고 박미정(2003)은 한국어와 중국어 분류사의 기본적인 특징 및 기능과 활용 상황에 대하여 비교하였고, 최여진(2004)은 분류사의 의미적 특징, 통사적 특징, 화용론적 특징을 대조하면서 설명하였다. 靳葆强(2006)은 한국어와 중국어 분류사구의 어법기능을 비교연구하였고, 주빈(2006)은 한국어와 중국어의 수량사 구성의 비교를 하고 그에 대한 비교를 전제로 하면서 분류사의 유형을 분류하였고, 유주명(2007)은 분류사의 오류 유형을 분석하고, 그 유형을 중국어의 간섭에 의한 오류와 한국어 내적 간섭에 의한 오류로 나누어 설명하고, 분류사 사용의 오류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왕수위(2007)는 한국어 분류사를 한자어와 고유어로 나누어 중국어의 분류사

와 대조하였고 의미와 용법에서의 대응을 주로 연구하였다.

이상 연구들은 모두 한국어 분류사와 중국어 분류사의 정의, 분류, 의미, 구조, 용법 등을 연구해왔다. 따라서 본고는 선행연구를 토대로 한국어의 분류사와 중국어 분류사의 의미를 비교할 때 같은 의미로 쓰이는 분류사, 다른 의미로 쓰이는 분류사, 한국어에서 중국어보다 더 넓은 의미로 쓰이는 분류사, 중국어에서 한국어보다 더 넓은 의미로 쓰이는 분류사로 나누어서 설명하겠다.

본고는 모두 4장으로 이루어진다. 1장은 서론이고, 2장은 한국어와 중국어 분류사의 구조 특징을 설명하고, 분류사의 정의 및 유형을 전제로 두 언어에서의 분류사의 구성방식도 살펴보겠다. 3장은 한국어의 분류사를 한자어와 고유어로 나누어서 중국어의 분류사와 비교하면서 의미상의 용법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4장은 결론이다.

2. 한국어와 중국어 분류사의 구조 특징

2.1 한국어와 중국어 분류사의 정의 및 유형

2.1절에서 한국어와 중국어의 분류사 명칭에 대하여 각 학자마다 어떻게 분류사를 정의하였는지를 살펴보겠다. 그리고 한국과 중국의 문법 학자들이 분류한 분류사 유형을 살펴보고 그들의 분류방식을 비교하면서,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는 한국어 분류사를 기준으로 분류사의 유형을 재분류하겠다.

2.1.1 분류사의 정의

2.1.1.1 한국어 분류사의 정의

한국어 분류사에 대한 명칭과 정의는 학자마다 다르다. 최현배(1937), 이희승(1961), 서정수(1969), 고영근·남기심(1987), 이송녕(1968)은 분류사를 명사설로 분류하였고, 김민수·이기문은 분류사를 수사설로 분류하였으며, 임홍빈, 채완·이익섭은 분류사를 분류사설로 분류하였다. 그러나 최근 들어 일반적인 의존명사와 다른 범주로 독립된 하나의 문법요소로 취급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분류사’라는 명칭을 쓰는 학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최현배(1937: 223)는 분류사를 ‘셈 낱덩이 불완전한 이름씨’라 칭하고 반드시 셈을 나타내는 매김씨 뒤에 쓰여서 그 셈이 낱덩이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이희승(1961: 26-28)은 ‘분명히 명사이지만 아무 실상이 있는 내용을 가지지 못하고 다만 형식상으로 명사가 될 뿐’인 말을 실질명사에 대한 형식명사로 설정하면서도 ‘자’, ‘말’, ‘근’ 등은 대명사 중 수량대명사로 보았다. 하지만 이희승(1976: 35)에서는 명사를 완전명사와 불완전명사로, 불완전명사를 다시 일반 불완전명사, 부사성 불완전명사, 수량 단위성 불완전명사로 나누고, ‘되’, ‘석’, ‘개’, ‘못’, ‘명’과 같이 물건의 수량과 부피·무게·길이·거리·화폐의 단위 또는 시간의 단위 등을 수량 단위성 불완전명사에 포함시켜 ‘量數詞’라고 하였다.

서정수(1969: 180)는 한국어의 분류사를 ‘셈단위’라고 부르고 “셈단위는 다만 수관형사(Numeral)만을 선행하여 쓰이며 지시물을 표시하는 것이 아니고 지시물의

수량을 표시하는 단위 구실을 할 뿐”이라고 하였다.

고영근·남기심(1987: 35)은 ‘마리’, ‘켈레’, ‘채’……는 선행하는 명사의 수량을 표시하는 말로 자립성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의존명사로 보아야 하며 이를 ‘단위성 의존명사’라고 명명하였다.

이승녕(1968: 73)은 명사를 보통명사·고유명사·불완전명사·단위명사로 나누어 ‘수’, ‘것’, ‘줄’ 등 독립해서 쓸 수 없는 말을 ‘불완전명사’라고 했고, 수를 계산할 때 쓰이는 ‘못’, ‘마리’, ‘채’, ‘말’, ‘벌’, ‘그루’ 등은 ‘단위명사’ 또는 ‘수명사’라고 보았다.

다음은 분류사가 명사와 전혀 다른 범주로 취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학자들의 주장을 살펴보자.

김민수·이기문(1970: 39)은 분류사를 수사로 다루었다. 즉 사물의 분량을 세는 ‘개, 못, 섬, 명’ 등을 ‘명수사’ 또는 ‘양수사’라 해서 수사의 하위 부류로 다루었다.

임홍빈(1979: 213)에 와서는 ‘분류사’라는 용어가 등장하게 된다. 여기에서는 한국어 보통명사의 성격을 개체 집합적 유(類)로 규정하고 이것을 개별화·단위화하여 표현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방법적 존재가 분류사라고 하여 한국어가 온전한 의미의 ‘분류사 언어’라고 밝혔다.

채완·이익섭(1999: 139)은 분류사란 셀 수 없는 대상을 셀 수 있도록 단위화해 주거나 썸의 대상이 되는 명사의 ‘의미론적 특성을 부여해주는 기능을 하는 단어’라고 정의하면서 한국어의 ‘수량단위 의존명사’는 수량의 단위를 나타내 주면서 썸의 대상이 되는 명사의 의미론적 자질을 표시해 주기 때문에 ‘분류사’와 동일한 개념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채완(1990: 26)은 ‘번, 판, 회’와 같은 분류사를 사건이나 행위명사와 연결되는 분류사라고 정의한 바 있다. 그는 이들 분류사를 동작 분류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고 명사 분류사라는 명칭을 그대로 사용했지만 사건과 행위와 관련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관점에서 중국어 분류사의 동작분류사와 같은 개념으로 보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상을 종합해 보면 한국어 문법 학자들은 대체로 분류사를 “사람과 사물의 수량 단위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정의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것’은 이승녕(1968)의 ‘단위명사’, 이희승(1961)과 김민수·이기문(1970)의 ‘양수사’와 같이 여러 명칭으로 불렸지만 대체로 최현배가 주장한 ‘불완전 명사’로 다루어진다.

하지만 본고에서는 여러 학자들의 견해를 근거로 한국어의 분류사를 “수량을 나타내는 말 뒤에 쓰여 사람과 사물의 수량단위를 나타내고, 사건이나 행위의 횟수를 나타낸다.”라고 정의하고자 한다.

2.1.1.2 중국어 분류사의 정의

중국어 분류사는 이전의 중국어 문법서에서 ‘記數의 別稱, 量詞, 單位名詞, 數位詞, 記標, 助名詞, 單位詞, 類別詞, 副名詞’ 등과 같이 불리어 왔다. 張志公(1959: 20)이 발표한 《한어교학어법계통간설》에서 분류사는 처음 ‘양사’라고 명칭이 정해지고 중국어 품사에 포함되었다. 그 후부터 분류사는 중국어 품사체계에서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게 되었다. 아래에서 중국 문법 학자들의 주장을 살펴보자.

馬建忠(1998: 122)은 《馬氏文通》에서 분류사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非表語而後者, 必所數者可不言而喻, 故凡物之功名有別稱以計數者, 如車乘馬匹之類, 必先之.”²⁾ 馬建忠은 중국어법 사상 최초로 분류사에 대해 언급을 하였으나 분류사를 독립된 품사로 설정하지 않았다.

黎錦熙(2000: 84)는 《新著國語文法》에서 中國語語法史上 처음으로 ‘量詞’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분류사를 다음과 같이 정의했다. “量詞就是表數量的名詞, 添加在數詞之下, 用來作所計數的事物之單位.”³⁾ 그는 분류사를 명사의 하위범주에 포함시켰을 뿐 분류사를 독립된 하나의 품사로 다루지는 않았다.

王力(1985: 214)은 《中國語語法理論》에서 “我們之所以把它叫做單位名詞者, 一則因爲它們本身是名詞, 或從名詞演變而成, 一則因爲它們的用途在於表示事物的單位.”⁴⁾라고 정의하였다.

呂叔湘(1982: 129)은 《中國文法要略》에서 분류사를 “副名詞表示事物或行爲的單位, 又稱爲‘單位名詞’或‘量詞’.”⁵⁾라고 정의하였다. 그리고 《現代漢語八百詞》(1980)에서는 분류사와 수사를 각각 하나의 독립된 품사로 나누었다. 이것은 그가 분류사에 대해 따로 정의하지 않았지만 하나의 독립된 품사로 인정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呂叔湘은 1988년 朱德熙와 공저한 《語法學習》과 《語法修辭講話》에서는 분류사를 ‘副名詞(부명사)’라고 개칭하여 명사의 부류에 포함시켰다.

張志公(1957: 20)은 《暫漢語教學語法系統》에서 분류사를 “數量詞是數目. 分量單位的名稱. 一般來說, 大都是一個表數目的詞和一個表分量單位的詞連起來, 如‘一斤’·‘十里’·

-
- 2) 表語가 아니지만 뒤에 쓰는 것은 반드시 헤아려지는 단위임은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사물의 모든 일반 호칭은 별칭으로 수를 세는데, 예를 들면 車(차), 乘(승), 馬(말), 匹(필) 등은 반드시 앞에 온다.
 - 3) 분류사는 수량을 나타내는 명사로서 수사의 아래에 첨가되어 헤아리고자 하는 사물의 단위로 쓰인다.
 - 4) 우리들이 그것들을 단위명사라 부르는 이유는, 그들 자신이 명사이거나 혹은 명사에서 변형된 것이거나 그들의 용도가 사람이나 사물의 단위를 표시하기 때문이다.
 - 5) 副名詞는 사물이나 행위의 단위를 나타내며, 또한 ‘단위명사’ 혹은 ‘분류사’라고 부른다.

‘一百種’等共同作句子成分，所以把它們和起來稱爲‘數量詞’.”⁶⁾라고 정의하였다.

郭紹虞(1979: 276)는 《漢語語法修辭新探》에서 분류사를 “因爲量詞可以概括單位詞，而單位詞則不能概括量詞，這是明顯的事實.”⁷⁾라고 하면서 단위로 부르지 말고 분류사로 불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劉月華(2002: 129)는 《實用現代漢語語法》에서 12품사 가운데 분류사를 하나의 독립된 품사로 분류하고 분류사를 “量詞是表示事物或動作的數量單位的詞. 量詞分名量詞和量詞兩大類.”⁸⁾라고 정의하였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중국어의 분류사는 다른 언어에 없는 특유의 계량단위를 나타내므로 ‘量詞(양사)’라는 명칭이 가장 적합하다고 보고, ‘量詞’를 ‘사람이나 사물 또는 동작의 수량단위이고, 수량화의 대상인 사람이나 사물 또는 동작의 의미론적 특성을 부여해주어 결합대상을 정해준다.’라고 정의하였다.

이상에서 보면 한국어나 중국어도 분류사에 대한 명칭은 학자마다 다르게 사용되고 있고 양국의 문법학계에서 오랫동안 치열하게 논쟁을 벌여왔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한국어의 분류사는 아직까지도 의존명사, 불완전명사, 수량단위 불완전명사라 불리고 있다. 이에 반해 중국어의 분류사는 張志公(1959: 20)이 발표한 《한어교학어법계통간설》에서 처음으로 ‘量詞’라는 명칭이 정해지고 독립된 품사로 되었다.

2.1.2 분류사의 유형

2.1.2.1 한국어 분류사의 유형

한국어 분류사는 주로 명사 분류사이다. 중국어의 분류사보다 수량이 많지 않지만 분류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먼저 임홍빈(1991: 46-51)은 고유어 계통, 한자어 계통, 외래어 계통과 혼종 형태 등 네 가지로 분리했다. 고유어 계통의 분류사는 ‘가닥, 가락, 그루’ 등 171개이고,

6) 수량사는 수와 분량단위의 명칭이다. 일반적으로 말하면 대부분 수를 표시하는 하나의 수와 그리고 분량단위를 표시하는 하나의 단어를 한데 묶은 것이다. 이를테면 ‘一斤(한 근)’, ‘十里(십 리)’, ‘一百種(백 가지)’ 등은 공통으로 문장성분을 이룬다. 그러므로 그것들을 합해서 ‘수량사’라 부른다.

7) 분류사는 單位詞를 총괄 할 수 있지만 單位詞는 분류사를 개괄 할 수 없다. 이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8) 분류사는 사물 혹은 동작의 수량 단위어이며, 명량사(명사+분류사)와 동량사(동사+분류사) 두 종류로 크게 분류된다.

한자어 계통의 분류사는 ‘편(篇), 폭(幅), 회(回)’ 등 98개이다. 이밖에 외래어 분류사는 ‘킬로그램(kilogram), 페이지(page), 센티(centi)’ 등과 같은 것이 있다. 또 한자어와 외래어의 혼종으로 된 분류사는 도량형(평방미터, 입방미터 등)에만 나타난다.

다음 정제한(1998: 211-215)은 고유어 분류사(가리, 가마, 가지 등 99개), 의사고유어 분류사(가닥, 가락, 가래 등 95개), 한자어 분류사(간, 개, 권 등 126개), 의사한자어 분류사(건, 곡, 급 등 46개)의 네 가지 범주로 구분하기도 했다.

이외에 한국어 분류사의 분류에 대한 아래 네 가지 견해를 살펴보자.

유동준(1983: 277-296)은 한국어 분류사를 척도범주, 모양범주, 배열범주, 인생범주, 수량범주 등 5가지 기본 범주로 분류하고 이것을 다시 14개의 하위범주로 재분류하였다. 분류한 유형을 표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1> 유동준(1983)의 분류사 유형

구 분	분 류		예
척도범주	절대 척도 분류사		근, 평, 관...
	상대 척도 분류사		품, 뺨, 잔...
모양범주	유형	구 형 분류사	툄, 방울, 알...
		장방형 분류사	가락, 자루, 개비...
		편 형 분류사	앞, 장, 폭...
	무형		건, 편, 시간...
배열범주	규칙배열	위음 분류사	두름, 괘...
		포갠 분류사	연, 꾸러미...
	불규칙 분류사		꼬치...
인생범주	인성 분류사		명, 분, 구...
	비인성 분류사		필, 마리...
수량범주	중립 분류사		개...
	수량 분류사	날 분류사	병, 마디...
		무리 분류사	다발, 접...

한편, 채완(1982: 70)은 분류사를 도량형 분류사와 부류 분류사로 양분하고, 부류 분류사를 의생활, 식생활, 주생활, 문자생활, 기계·기구, 사건·행위, 모양, 인체 등 하위범주로 재분류하였다. 분류한 유형을 표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2> 채완(1982)의 부류 분류사 유형

분 류	예
의생활	쌈, 감, 벌, 가마, 켈레, 가닥, 땀...
식생활	톨, 다발, 송이, 그루, 마리, 방울, 갑, 매...
주생활	칸, 채, 동...
문자생활	권, 편, 장, 폭...
기계·기구	대, 문, 자루...
사건·행위	가지, 거리, 건, 찬, 회...
모양	개, 덩어리, 무더기, 묶음, 쌍, 알, 토막...
인체	걸음, 길, 모습, 발, 뺨, 손, 아름...

그리고 임동훈(1991: 40-44)은 분류사에 단위형식명사라는 명칭을 붙이고 묶음, 재료, 부피, 길이, 무게의 다섯 가지 범주로 분류했다. 분류한 유형을 표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3> 임동훈(1991)의 분류사 유형

구 분	분 류	예
부류형식명사	묶음형식명사	쌈, 축, 동...
	재료형식명사	명, 필, 마리, 권...
도량형식명사	부피형식명사	홉, 되, 섬...
	길이형식명사	치, 자, 발...
	무게형식명사	푼, 근, 냥, 돈...

마지막으로, Sang-ryong Oh(1994: 49-85)는 모든 분류사를 집체, 부분, 개체의 세 범주로 분류했는데, 그 중 개체 분류사를 11개의 하위범주로 분류하였다. 분류한 유형을 표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4> Sang-ryong Oh(1994)의 분류사 유형

분 류		예
집 체		떼, 무리, 짝, 쌍, 다발, 묶음...
부 분		덩어리, 조각, 도막...
개 체	유정성	명, 분, 구, 마리, 필...
	식물	포기, 뿌리, 송이, 그루...
	추상명사	가지, 번, 건, 탕...
	무형개념	권, 매, 부, 편...
	장소	곳, 군데...
	약	정, 제, 첩...
	기계	척, 대...
	기타	개, 칸, 끼, 통, 마디, 방울...
	모양	가닥, 울, 대, 자루...
	용기와 가용기	갑, 병, 줌, 모금...
	오래되고 제한된 쓰임	관, 거리, 두름...

이상과 같이 여러 학자들의 한국어 분류사의 범주화 양상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러나 여러 학자들의 분류 기준이 행위나 동작에 관련된 분류사의 범주를 따로 만들지 않고, 대부분 연구가 중국어의 명량사에 해당하는 분류사에만 국한되어 있는 점이 아쉽다. 이와는 달리 곽추문(1997: 39)은 한국어 분류사의 분류 체계에서 동작이나 행위의 횟수나 수량을 나타내는 ‘동작 분류사(번, 끼, 차례 등)’를 명사에 관한 분류사와 구별하여 분류하였다.

2.1.2.2 중국어의 분류사의 유형

중국어에서 분류사의 명칭이 정해지고 품사의 독립적인 위치를 얻은 후에 분류사의 분류에 관해서 학자마다 다른 견해들이 제시되긴 했으나, 현재까지 통일지 않았다. 중국어 분류사는 이분법과 삼분법, 그리고 직접 여러 가지로 분류하는 방법이 있다.

먼저, 분류사를 이분법으로 분류한 학자로는 劉月華이다. 劉月華(2002: 129-136)는 분류사를 명량사⁹⁾와 동량사¹⁰⁾로 분류하고, 명량사를 다시 6개 하위범주로 분류하고, 동량사를 전용동량사와 차용동량사로 분류하였다. 분류한 유형을 표로 표시

9) 명량사는 명사와 분류사가 결합하여 사물을 세는 단위이다.

10) 동량사는 동사와 분류사가 결합하여 동작의 횟수를 세는 단위이다.

하면 다음과 같다.

<표 5> 劉月華(2002)의 분류사 유형

구분	분류	예
명량사	개체분류사	個, 張, 把, 粒, 本, 條 等
	집합분류사	副, 群, 雙, 套 等
	도량형분류사	寸, 分, 尺 等
	부정분류사	點, 些 等
	준분류사	國, 年, 省, 市 等
	복합분류사	人次, 架次, 件次 等
동량사	전용동량사	回, 遍, 次 等
	차용동량사	口, 刀, 眼, 脚 等

다음, 분류사를 삼분법으로 분류한 학자로는 郭紹虞이다. 郭紹虞(1979: 278)는 분류사를 명량사, 동량사, 형량사¹¹⁾로 분류하였다. 분류한 유형을 표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6> 郭紹虞(1979)의 분류사 유형

분류	예
명량사	一杯水, 一斤肉, 一個人 等
동량사	笑了一下, 哭了一場, 咬了一口 等
형량사	兩斤重, 高五尺 等

그리고 呂叔湘(1996: 8)은 분류사를 직접 여러 가지로 분류하였다. 즉 개체분류사, 집합분류사, 부분분류사, 임시분류사, 도량형분류사, 용기분류사, 자주(自主)분류사, 동량사, 복합분류사 등 9가지로 분류하였다. 분류한 유형을 표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11) 형량사는 형용사와 분류사가 결합하여 사물의 형상을 표시하는 단위이다.

<표 7> 呂叔湘(1996)의 분류사 유형

분류	예
개체분류사	面, 根, 枝, 件, 粒, 本, 條 等
집합분류사	對, 副, 群, 雙, 類, 幫 等
부분분류사	點, 些 等
임시분류사	身, 頭, 手, 筆 等
도량형분류사	畝, 寸, 分, 尺, 斤, 等
용기분류사	瓶, 杯, 壺, 車, 碗 等
자주분류사	系, 國, 年, 站, 縣 等
동량사	步, 口, 眼, 腳, 回, 遍, 次 等
복합분류사	秒立方米, 噸公里 等

이상과 같은 선행 연구의 검토를 통하여 한국어의 분류사와 중국어의 분류사의 의미와 용법에 대한 비교 연구를 계속해 나가기 위해서 한국어에서 잘 쓰이는 분류사의 의미와 용법을 분석하고 중국어에서 그것과 대응되는 분류사를 찾아내어, 비교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본고에서는 Sang-ryong Oh(1994)와 呂叔湘(1982)의 분류사 분류 방식을 택하여 <표8>처럼 한국어 분류사의 의미범주 유형을 크게 개체(個體), 집합(集合), 도량형(度量衡) 세 범주로 나누었다. 개체 분류사는 사람, 동물, 식물, 기계·도구, 사물의 모양, 건축물, 의류, 문자·문화, 놀이·사건, 용기·기구, 나이·점수·등급, 횟수·차례 등 12개 하위범주로, 집합 분류사는 정량(定量)과 비정량(比定量) 2개 하위범주로, 도량형 분류사는 길이, 용량, 무게, 화폐 등에 사용되는 분류사로 나누었다. 분류한 유형을 표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8> 본 논문의 분류사 유형

유형	분류	한국어	중국어
개체	사람	개, 명, 구, 대, 분	個, 名, 具, 代, 位
	동물	필, 두, 수, 미, 마리	匹, 首, 頭, 尾, 條, 只
	식물	주, 그루, 포기, 송이	株, 棵
	기계·도구	량, 수, 척, 대, 문, 자루	輛, 艘, 隻, 臺, 門
	사물의 모양	폭, 장, 매, 알, 덩어리, 토막	幅, 張, 枚, 顆, 塊, 段
	건축물	동, 좌, 층, 채, 칸	棟, 座, 層, 所, 間
	의류	장, 벌	張, 件
	문자·문화	권, 편, 부, 절, 장, 문, 장, 통, 쪽	卷, 篇, 部, 節, 章, 門, 場, 通, 頁
	놀이·사건	건, 국, 가지	件, 局, 樁
	용기·기구	갑, 병, 잔, 포대	盒, 瓶, 盞, 袋
	나이·점수·등급	세, 점, 급, 살	歲, 點, 級
집합	횃수·차례	차, 회, 번, 도, 끼, 바탕, 차례	次, 回, 番, 度, 陣, 場
	정량	쌍, 켈레	雙, 副
도량형	비 정량	반, 조, 속, 무더기, 묶음, 다발, 보따리	班, 組, 束, 堆, 包
	길이	리, 촌, 뺨	里, 寸, 拃
	넓이	경, 필, 무, 되지기, 마지기, 섬지기	頃, 筆, 畝
	무게	근, 냥, 되, 섬, 말	斤, 兩, 石, 斗, 昇
	화폐	원	元, 塊

이상 앞에서 분류사의 정의와 유형을 살펴보고, 여러 학자들의 견해를 토대로 각각 한국어와 중국어 분류사의 명칭을 정의하고 분류사의 유형을 재분류하였고, 한국어와 중국어 분류사의 분류방법을 참조하여 한국어 분류사를 대상으로 중국어의 분류사와 비교하였다. 아울러 한국어의 한자어 분류사와 동일한 형태를 가지는 중국어 분류사를 함께 제시하여 한국어 분류사와 중국어 분류사의 의미상의 대응양상을 비교·분석하고, 한국어를 배우는 학습자나 중국어를 배우는 학습자들이 분류사와 명사의 연관성을 보다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해본다.

2.2 한국어와 중국어의 분류사구의 구성 방식

2.2.1 한국어와 중국어의 분류사구¹²⁾의 결합구조

한국어의 분류사는 단독으로 쓰이지 못하고 항상 수량사와 결합하여 나타난다.¹³⁾ 그에 반해 중국어의 분류사는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수량사 없이 명사와 수의적인 결합이 가능하다.

- (1) 옷 한 벌 샀다.→*옷 벌 샀다.
- (2) 買了一件衣服.→買了件衣服.¹⁴⁾

(1)에서 수량사 ‘한’을 빼면 문장은 비문이 된다. 한국어의 분류사는 수량사와 분류사 간의 결합이 매우 긴밀하여 절대 분리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며, 수량사의 도움 없이 문장에서 단독으로 나타날 수 없음을 말한다. 즉 한국어의 분류사는 수(數)개념의 전제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이와 같이 독립성이 없다는 이유로 과거에 많은 한국어문법학자들은 분류사를 ‘불완전 명사’ 혹은 ‘의존 명사’라는 이름을 붙여 정의하기도 했다. 이에 반해 (2)의 중국어의 분류사는 일찍이 독립적인 품사로 인정되었고, 수량사 없이도 명사와 결합할 수 있다.

그리고 한국어와 중국어의 분류사구에서 명사나 수량사나 분류사를 생략할 수 있다. 하지만 모두 일정한 조건하에서만 가능하다. 그 경우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앞 문장에서 가리키는 바가 분명할 때에 뒤 문장에서는 앞 문장에서 가리

12) 본고에서는 수사와 수 관형사를 수량사라 통칭하고, 분류사구를 ‘수량사+분류사’의 구조로 설정하고 설명하겠다.

13) 현대 한국어 명사와 수사 결합의 기본 유형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눈다.

- a. 명사+수사: 사람 둘
- b. 명사+수사+분류사: 사람 두 명
- c. 수사+명사: 두 사람
- d. 수사+분류사(의)+명사: 두 명(의) 사람

이 가운데 현대 한국어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유형은 ‘a’와 ‘b’ 유형이며, 특히 명사가 수사 앞에 오고 분류사가 가장 뒤에 배치되는 ‘b’ 유형이 기본 유형이다(채완 1982: 158).

위에 제시된 네 가지 유형을 분석하면 한국어의 경우 수량사와 명사가 문장구성의 중심성분이 되고 분류사는 필수가 아닌 선택이 되므로 분류사가 없는 문장을 허용하고 있다. 따라서 문장구성에 있어 분류사의 지위가 동일한 문장 구성에서 중국어 분류사가 갖는 지위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하다.

14) 한국어의 예문과 의미가 같은 문장에서는 따로 번역하지 않았다.

키는 명사를 생략할 수 있다.

(3) 아침에 원래 배 3개를 가지고 왔는데 길에서 친구를 만나 그에게 한 개를 줬고 지금은 두 개 남았다.

(4) 我早上本來帶三顆梨來，路上遇到朋友的時候，給他一顆(梨)，現在只兩顆(梨)。

위의 (3)과 (4)에서 보듯이 한국어와 중국어의 문장 ‘아침에 배 3개를 가져왔다’에서 ‘배’응 이미 언급하였으므로 뒤에서 ‘배(梨)’를 생략할 수 있다. 이 점에서는 두 언어의 분류사구(分類詞句)는 똑같이 쓰인다.

둘째, 한국어와 중국어의 일부 분류사구에서 수량사를 생략할 수 있다.

(5) a. 그 사람 돈 푼이나 벌었다고?

b. 요즘 밥 술이나 뜨고 산다.

(5a)와 (5b)에서 조사 ‘-나/-이나’는 ‘많진 않으나 조금 있음’을 알잡아 이르는 뜻을 나타내고 있으므로 여기에서 명사와 직접 결합된 분류사 ‘푼’, ‘술’은 고유의 사물의 수량을 헤아리는 일종의 수량표현으로 간주할 수 있으나 그 주요 역할이 ‘사물의 계량’에 있지 않기 때문에 구체적인 수량이 명시되지 않아도 가능하다. 그러나 이러한 예는 지극히 제한적인 환경에서 사용되는 예외로 간주해야 하며 대부분의 분류사는 수량사를 제외하고 사용될 수 없다.¹⁵⁾

(6) a. 我有個朋友在北大上學.(내 친구 한 명이 북경대학에서 공부하고 있다.)

b. *我有(兩)個朋友在北大上學.

위의 (6a)에서 수량사 ‘一’을 생략했다. 이때 생략된 수량사는 (6b)처럼 복수를 나타내지 못하고 오직 하나만을 나타내는 명사구에서만 가능하므로 분류사는 ‘제한적 자립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중국어의 분류사가 제한적이긴 하나 수사로부터 독립적으로 사용되지만, 이에 반해 한국어의 분류사는 대부분 수량사를 동반해야 한다.

15) 조용상(1997: 25)

셋째, 분류사구에서 분류사를 생략할 수 있다.

한국어의 분류사일 경우, 화용상의 조건이 화자와 청자에게 모두 명확히 인식될 수 있는 상황이라면 분류사를 생략해도 무방하다.

(7) (술집에서) 맥주 한 잔 주세요.

(8) (在咖啡店) 給我一杯(咖啡).

(커피 한 잔 주세요.)

위의 (7)에서 ‘맥주 한 잔 주세요.’를 분류사 ‘잔’을 생략하고, ‘맥주 하나 주세요.’라고 해도 이해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 하지만 (8)을 보면 중국어의 분류사 ‘杯(잔)’을 생략한 것이 아니라 화자나 청자가 다 아는 조건에서 명사 ‘咖啡(커피)’를 생략한다.

邢福義(2003: 102)는 어떤 명사들의 어법기능은 분류사와 같아서 직접 수량사와 결합할 수 있으며, 이런 성질을 지니고 있는 분류사는 수량사와 사용될 때 생략된다.

(9) a. 四季 (사계절)

b. 九牛一毛 (많은 가운데 아주 적은 부분: 九隻牛身上的一根毛)

c. 三十人 (삼십 명)

d. 我今天二十五(歲). (나는 금년에 25(세)이다.)

위의 (9a)의 ‘사계절’을 보면 명사의 성질도 있고 분류사의 성질도 있다. 그리고 (9b)에서 보듯이 성어(成語)뒤에는 일반적으로 분류사를 생략할 수 있다. (9c)에서는 수사 ‘十, 百, 千, 億’ 등은 분류사의 성질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분류사를 생략하고 직접 연결할 수 있다. (9d)를 보면 나이를 말할 때도 분류사 ‘歲(세)’를 생략할 수 있다. (9a), (9b), (9c)의 경우는 오직 중국어에서만 사용되고, (9d)의 번역문을 보면 한국어의 분류사구도 분류사를 생략할 수 있다.

한국어는 ‘SOV’어순을 가지므로 동작 분류사¹⁶⁾가 ‘수량사+분류사+동사’의 어순으

16) 한국어에서 동작의 발생 횟수나 행위 변화를 수량화하는 분류사는 독립된 명칭과 지위를 얻지 못하고 있다. 일찍이 김민수(1970: 150)는 ‘번, 차례, 회’ 등을 회수사(回數詞)라고 명명한 바 있으나 보편적으로 사용되지는 못했다. 광추문(1997: 78)은 이러한 성격의 분류사를 ‘동작 분류사’라 이름하고 ‘번, 바퀴, 바

로 결합되고, 중국어는 ‘SVO’어순을 가지므로 동작분류사가 ‘동사+수량사+분류사’의 어순으로 결합된다.

(10) a. 그가 집에 한번 가려면 얼마나 힘든지 모른다.

(他回一趟(번)家, 不知道有多難.)

b. 이 드라마는 3회만 있다.

(這電視劇只有三回(회).)

c. 비가 한바탕 내렸다.

(下了一場(바탕)大雨.)

(10)을 보면 한국어의 분류사 ‘번, 회, 바탕’은 중국어의 동작분류사 ‘趟, 回, 場’과 대응된다. 한국어의 동작 분류사는 문장에서 ‘수량사+분류사+동사’의 어순으로 결합되므로 ‘수량사+분류사+명사’의 결합 양식을 보이는 명사 분류사구의 구성방식과 비슷하다. 또한 중국어 동작 분류사에 비해 한국어의 동작 분류사는 수적으로 아주 적고 통사적으로도 비교적 간단하게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¹⁷⁾

위에서 제시한 한국어와 중국어 분류사구의 결합 유형들을 표로 작성하면 다음과 같다.

<표 9> 한국어와 중국어 분류사구의 결합 유형

	한국어		중국어	
	결합 유형	예	결합 유형	예
사물	수량사+분류사	한 <u>사람</u>	수량사+분류사+명사	一 <u>個人</u>
	명사+수량사+분류사	사람 <u>한 명</u>		
	수량사+분류사(의)+명사	한 <u>명의</u> 사람		
동작	수량사+분류사+동사	한 <u>번</u> 가다	동사+수량사+분류사	去一 <u>趟</u>

위의 표에서 나타난 한국어의 분류사구 구성형식 가운데 ‘Q-CL’¹⁸⁾유형은 한국어

탕, 차례, 회’ 등이 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본고의 논의에서는 관주문의 ‘명사 분류사’와 ‘동작 분류사’라는 이름을 임시적으로 사용하기로 한다.

17) 한국어에 있어 많은 수는 아니지만 이미 중세기에 ‘번, 입, 회’ 등 동작 분류사가 사용되었던 문헌기록이 확인된다. 이때서부터 유지되던 ‘수사+분류사+동사’의 어순은 많은 변화와 다양한 용법을 만들어낸 사물에 대한 분류사와 달리 한 가지 유형으로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조용상 1997: 102-106).

18) 수사(Quantifier: Q); 분류사(Classifier: CL); 명사(Noun: N)

나 중국어에서도 모두 수량사구(數量詞句)의 기원적인 형태¹⁹⁾라고 짐작할 수 있다. 또한 한국어의 ‘Q-CL(의)-N’의 유형은 중국어의 ‘Q-CL-之-N’의 유형과 대응되어 나타나며 현대 중국어에서는 구어체와 문어체를 막론하고 ‘Q-CL-之-N’의 유형을 찾아보기 어려우나, 한국어에서는 아직도 문어체로 사용하고 있다. 이와 같이 시대의 흐름에 따라 다양한 변화를 거듭해온 사물 수량사구와는 달리 동작 수량사구는 두 언어에서 비교적 큰 변화 없이 기원적인 형식을 유지해오고 있다.

2.2.2 한국어와 중국어 분류사구의 중첩(重疊)구조

한국어 분류사의 중첩은 문장에서 명사나 부사의 기능을 한다. ‘가닥가닥, 가지가지, 걸음걸음, 군데군데, 송이송이, 마디마디’ 등 주로 고유어 계통 2음절 분류사가 ‘분류사+분류사’의 유형으로 중첩이 가능하다.²⁰⁾ 이 유형은 중국어의 분류사 중첩형식과 같은 형태로 의미적으로도 중국어 분류사 중첩과 마찬가지로 ‘하나하나마다, 모두’의 의미를 갖게 된다. 중국어의 분류사는 일반적으로 단독으로는 문장성분이 되지 못한다(胡明揚1996: 337). 현대 중국어에서 명사·동사·형용사뿐만 아니라 분류사도 중첩이 가능하고, 분류사의 중첩은 다른 품사가 중첩될 때와 마찬가지로 ‘분류사+분류사’의 형식으로 중첩된 후에는 새로운 의미가 첨가되어 ‘每(매)’, ‘多(많다)’, ‘逐一’, ‘連綿不斷’의 뜻이 첨가된다. 아래서부터는 중첩 형식을 ‘AA’(A는 분류사)식으로 표시하겠다.

(11) 기와지붕 용마루 위에는 마른풀들이 가닥가닥 바람에 나부끼고 있었다.

(12) 他的功課, 門門都優秀.

(그의 성적은 모든 과목이 다 우수하다.)

위의 (11)을 보면 한국어 분류사는 ‘가닥가닥’으로 중첩되는데 ‘하나하나(가닥)마다’

19) 先秦時代에는 ‘수사+분류사’의 유형이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었고, 漢代에는 ‘명사+수사+분류사’, ‘수사+분류사+之+명사’ 유형이 보편적으로 사용되었다. ‘수사+분류사+명사’ 유형이 보편적으로 사용된 것은 中古時代 이후였다(周仁 1981: 351-354).

20) 원칙적으로 이음절로 되어있는 계통 분류사는 모두 중첩이 가능하지만 일부 예외도 있다. 다음은 채완(1987: 54-60)이 제시한 중첩 불가능한 분류사의 예이다.

*돼지 새끼가 마리마리 통통하다.

*연필을 자루자루 깎았다.

라는 뜻이다. (12)를 보면 중국어 분류사 ‘門門’는 ‘매 과목마다’라는 뜻이다. 한국어의 분류사는 2음절 중첩되어 ‘하나하나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중국어 분류사 ‘AA’식 중첩은 일반적으로 뒤에 ‘都’와 호응하며 단음절 중첩이 많고, 중첩되어 ‘매…마다’라는 의미를 가진다.

아래에서 ‘一A 一A’식 중첩 형식을 보여주는 한국어와 중국어 문장을 살펴보자.

(13) 한 분 한 분의 고객에게 정성을 다하는 기업.

(14) 我們廠新來了許多小伙子一個一個都是好樣的.

(우리 공장에 새로 온 많은 청년들은 모두 잘 생겼다.)

위의 (13)의 한국어와 (14)의 중국어 문장에서 보듯이 중첩된 후 ‘전부, 예외 없이, 모두’의 의미를 가진다. 대부분의 분류사가 어원적 계통이나 음절수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이 형태로 중첩이 가능하다.²¹⁾

그러나 한국어와 달리 중국어는 ‘一A 一A’식 중첩형식에서 두번째 ‘一’을 생략하여 ‘一AA’의 형식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때에도 그 어법적 의미나 용법은 변하지 않는다.

(15) *책 한 권권이 모두 알차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16) 一次次的失敗並沒有嚇倒他.

(매번 실패에도 그는 놀라지 않았다.)

(15)에서 보듯이 한국어는 두 번째 ‘一’을 생략할 수 없다. 그러나 (16)에서 보듯이 중국어의 경우는 가능하고, 중첩한 후의 의미는 ‘一A一A’식으로 중첩된 의미와 비슷하다.

지금까지 나타난 한국어와 중국어 분류사구의 중첩 유형을 하나의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21) ‘하나’는 고유어 수사이므로 고유어 계통의 분류사와는 자유롭게 결합한다. 그러나 한자어 계통 분류사 중 일부는 고유어 수사와 한자어 수사와 모두 결합할 수 있는데 반해, ‘일 년(一年), 이 단(二段), 삼 보(三步)’ 등과 같은 몇몇 한자어 분류사는 반드시 한자어 수사와 결합해야 하는 제약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조용상 1997: 26).

<표 10> 한국어와 중국어 분류사구의 중첩 유형

한국어	중첩 유형	중국어
마디마디	AA	人人
한 권 한 권	一A一A	一個一個
-----	一AA	一次次
(예외 없이) 모두 하나하나	기본의미	每(마다) 多(많다) 逐一(점점) 連綿不斷(끊임없이)

2.2.3 한국어와 중국어 분류사구의 문법 기능

앞에서 한국어와 중국어 분류사구의 구성방식을 비교해보았다. 즉 통사적인 어순에서 SOV형에 해당하는 한국어의 명사분류사 구성형식은 ‘Q-CL’, ‘N-Q-CL’, ‘Q-CL(의)-N’이고, 동작분류사의 구성형식은 ‘Q-CL-V’이다. 그리고 SVO형에 해당하는 중국어의 명사분류사 구성형식은 ‘Q-CL-N’이고, 동작분류사의 구성형식은 ‘V-Q-CL’이다. 이절에서는 한국어의 분류사가 수사와 결합하여 분류사구를 이룬 뒤 문장에서 주어, 술어, 관형어, 목적어, 부사어, 보어로 사용되는 현상을 살펴보겠다. 그리고 중국어의 분류사 역시 수사와 결합하여 다양한 문장성분의 역할을 하는 것을 살펴 보겠다.²²⁾

첫째, 주어-주어가 되는 경우를 살펴보자.²³⁾

(17) 한 근은 500그램이다.

22) 용어상의 혼동을 막기 위해 한국어의 문장성분에 대응되는 중국어의 문장성분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한국어	중국어
주어	主語(주어)
서술어	謂語(위어)
목적어	賓語(빈어)
보어	補語(보어)
관형어	定語(정어)
부사어	狀語(장어)

23) ‘주어-주어’구조에서 앞의 것은 한국어 문장성분이고, 뒤에 것은 중국어 문장성분을 뜻한다. 뒤의 구조들도 마찬가지이다.

(18) 一斤等于500克.

위의 (17)과 (18)에서 분류사구는 모두 문장에서 주어 역할을 하고, 판단·설명의 의미를 나타낸다.

그러나 문장의 앞뒤 관계로 보아 수식하려는 명사를 이미 언급하였기 때문에 지시하는 것이 분명할 때 단독으로 주어로 쓰인다.

(19) 이 선생님은 아이가 둘인데, 한 명은 초등학교에 다니고 한 명은 중학교에 다닌다.

(20) 李老師有兩個孩子, 一個上小學, 一個上中學.

(19)의 ‘한 명’과 (20)의 ‘一個’는 주어로 쓰이는데, 대화 배경에서 지칭이 명확하고 이의가 생기지 않거나 전후 문장에서 이미 밝힌 경우를 말한다.

중국어는 분류사의 중첩이 주어로 쓰일 수 있지만, 한국어는 분류사의 중첩이 부사어로 쓰인다.

(21) 이곳들은 곳곳마다 모두 재미있다.

(22) 這些地方, 處處都很有意思.

위의 (21)에서 ‘곳곳마다’는 ‘處處’라는 뜻이고, 주어가 되지 못한다. 그러나 (22)를 보면 중국어의 분류사 중첩은 주어 역할을 할 수 있다.

둘째, 술어-위어로 사용된 경우를 살펴보자.

(23) 한 타스는 12개이다.

(24) 一打是十二個.

위의 (23)의 ‘12개’는 서술어로 쓰이고, (24)의 ‘十二個’는 술어로 쓰인다. 이 경우는 한국어나 중국어나 모두 같다.

셋째, 관형어-정어로 사용된 경우를 살펴보자.

(25) 한 송이의 장미꽃은 무슨 의미를 나타내는가?

(26) 一朵玫瑰代表什么意思?

위의 (25)의 ‘한 송이’는 장미꽃을 꾸미는 관형어이고, (26)의 ‘一朵’은 ‘玫瑰’를 꾸미는 정어이다.

넷째, 목적어-빈어로 사용되는 경우를 살펴보자.

(27) 우리는 1분 1초를 아껴야 한다.

(28) 我們應該珍惜每一分, 每一秒.

위의 (27)의 ‘1분 1초’는 (28)의 ‘每一分, 每一秒’를 의미하고 문장에서 목적어 역할을 한다. 이 경우는 중국어나 한국어가 동일하다.

다섯째, 부사어-장어로 사용되는 경우를 살펴보자.

(29) 제 코가 열 자라도 천하태평이로군.

(30) 這孩子一點兒也不聽話.(이 애는 전혀 말을 듣지 않는다.)

위의 (29)의 ‘열 자라도’와 (30)의 ‘一點兒’는 모두 문장에서 부사어 역할을 한다. 그러나 중국어 분류사의 중첩은 한국어와 달리 문장에서 부사어로 쓰일 수 있다.

여섯째, 보어-보어로 사용되는 경우를 살펴보자.

(31) 내가 간 건 두 번도 안 된다.

(32) 我只去了兩次.

위의 (31)의 ‘두 번’과 (32)의 ‘兩次’도 모두 문장에서 서술어를 보충 설명하는 보어 역할을 한다. 이 경우에는 한국어나 중국어나 모두 동일하다.

일곱째, 독립어로 사용되는 경우를 살펴보자.

(33) 일 년이여, 제발 빨리 지나가거라.

(34) 一年, 眞慢.(일 년 참 늦게 지난다.)

(33)에서 보듯이 한국어 분류사구는 독립으로 사용된다. 하지만 (34)의에서 보듯이 중국어의 ‘一年’은 문장에서 주어 역할을 하는 것이지 독립어로는 쓰이지 않는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어의 분류사는 수량사와 결합하여 문장에서 주어, 술어, 관형어, 목적어, 부사어, 보어, 독립어의 역할을 한다. 중국어의 분류사구는 관형어로서의 용법이 제일 두드러지게 나타나지만, 한국어와 달리 독립어로는 쓰이지 않는다. 또한 한국어와 중국어의 분류사구는 문장내에서 수효나 분량 따위의 단위를 나타내는 기능을 한다.

3. 한국어와 중국어 분류사의 의미와 용법

3.1 한국어의 한자어 분류사와 중국어의 분류사

3.1.1 개체분류사

3.1.1절에서는 개체분류사에 사용되는 분류사를 의미자질에 따라 사람, 동물, 식물, 기계·도구, 사물의 모양, 건축물, 의류, 문자·문화, 놀이·사건, 용기·기구, 나이·점수·등급, 횟수·차례로 유형을 나누고, 그 유형에 편입된 분류사의 쓰임을 알아보겠다.

3.1.1.1 사람에 사용하는 분류사

여기에서는 사람에 사용하는 한국어의 한자어 분류사와 중국어의 분류사 ‘명(名), 대(代), 구(具)’를 주로 분석하고자 한다.

【명; 名】

한국어와 중국어 분류사 ‘명(名)’은 모두 사람을 세는 단위로 사용된다. 다만, 한국어에서 사람의 수량 단위 중에 제일 보편적으로 쓰이는 분류사는 ‘명’이라고 할 수 있는 반면, 중국어의 분류사 ‘名’은 오직 특정한 신분을 가진 사람한테만 쓴다. 그리고 중국어의 ‘名’은 등수를 나타낼 수 있지만 한국어에서는 등수를 나타낼 때 ‘等(등)’을 사용한다.

- (1) a. 사람 한 명
- b. 학생 한 명
- (2) a. 兩名醫師(의사 두 명)
- b. 第一名是金牌.(1등은 금메달이다.)

위의 (1)에서 한국어의 분류사 ‘명’은 사람을 세는 제일 보편적인 단위이다. (2a)

에서는 중국어의 분류사 ‘名’은 어떤 특정한 신분이나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을 셀 때 사용하고, (2b)에서는 등수를 나타낸다.

【대; 代】

한국어나 중국어의 분류사 ‘대(代)’는 모두 조대(祖代)와 세대를 셀 때 사용한다. 한국어의 분류사 ‘대’는 중국어로부터 차용되었지만 한국어에서 새로운 의미를 가지면서 현재는 중국어의 분류사 ‘代’보다 더 광범위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한국어의 분류사 ‘대’는 사람의 연세를 셀 때 사용하고, ‘십 몇 살’, ‘이십 몇 살’, ‘삼십 몇 살’인 사람을 나타낼 때는 ‘십대’, ‘이십대’, ‘삼십대’를 사용한다. 하지만 중국어에서 이렇게 사용되지 않는다.

- (3) a. 이십대 처녀
- b. 70대 노인
- c. 세종은 조선의 4대 임금이다.
- d. 오늘 저녁에는 소갈비 두어 대나 먹읍시다.
- (4) a. 年輕一代(젊은 세대)
- b. 一代冤家三世仇.(한 세대가 원수지면, 세대가 원한을 품는다.)

위의 (3a)와 (3b)에서 한국어의 분류사 ‘대’는 (십, 이십, 삼십 등의 수 뒤에 쓰여) 사람의 나이를 십년 단위로 끊어 나타내는 단위이고, (3c)와 (3d)는 조대(祖代)나 지위를 이어받은 순서를 나타내는 단위이다. 이 외에도 ‘대’가 소나 돼지의 갈비와 같이 길고 가는 물건의 날개를 세는 단위로 쓰이고 있는데, 이것은 길게 이어져 내려오는 가계나 왕조의 항렬이라는 ‘代’의 의미로부터 비유적으로 引伸된 것으로 추측된다. 이와 같은 ‘代’의 용법은 중국어에는 없는 의미이다(박성훈1998: 144). 이에 반해 중국어의 분류사 ‘代’는 (4)에서 보듯이 세대를 셀 때만 사용된다.

【구; 具】

한국어와 중국어의 ‘구(具)’는 모두 시체를 세는 단위로 사용된다. 한국어의 분류사 ‘구’는 오직 시체를 셀 때 사용되지만 중국어의 분류사 ‘具’는 관목의 단위도 표

시할 수 있다.

(5) 시체 세 구

(6) a. 一具尸體(시체 한 구)

b. 一具棺材(관목 한 개)

위의 (5)에서 한국어의 분류사 ‘구’는 시체를 세는 단위로 쓰인다. 중국어의 분류사 ‘具’는 (6a)에서 시체를 세는 단위로 쓰이고, (6b)에서 관목을 세는 단위로도 쓰인다.

【위; 位】

한국어의 분류사 ‘위’는 한자어어지만 중국어의 분류사 ‘位’와 전혀 다르게 사용되고 있다. 한국어의 분류사 ‘위’는 중국어의 용법과 동일하게 ‘존경의 의미’나 ‘대표’에 대한 분류사로 사용했었다.²⁴⁾ 하지만 지금은 ‘사람에 대한 존경의 의미’나 ‘대표’에 대한 분류사의 용법은 소실되었고, 등급이나 신위의 수효를 세는 단위로 쓰인다.

(7) a. 제1위

b. 영위(英靈) 5위에 대한 위령제

(8) a. 一位老人(노인 한 분)

b. 一位教授(교수 한 분)

위의 (7a)에서 한국어의 분류사 ‘위’는 일정한 기준에 의하여 매겨진 등급이나 등수를 나타내고, (7b)에서 죽은 사람의 신주(神主)나 또는 위패(位牌)에 모신 신의 수효를 세는 단위로 쓰인다. 중국어 분류사 ‘位’는 (8a)와 (8b)같이 주로 사람을 높여서 세는 단위 즉 존댓말로 보통 지위가 높은 사람이나 귀신·천사 등 추상적인

24) 아래의 용법과 같이 고대 한국에서는 ‘位’가 ‘神位’나 ‘존칭의 대상인 사람’ 및 ‘대표’ 등에 대한 분류사로 사용되었다(박성훈1998: 349-50).

(1) …當寺護法敬僧嚴欣·伯欣兩明神及近邱等三位…「三國遺事3」

(2) …當以各御上將軍一位, 大將軍一位…「朝鮮太祖實錄7」

(3) 母炮三位…「萬機要覽 軍政編3」

것을 세는데 적용한다.

3.1.1.2 동물에 사용하는 분류사

여기에서는 동물에 사용하는 한국어의 한자어 분류사와 중국어의 분류사 ‘필(匹), 두(頭), 수(首), 미(尾)’를 예로 들어서 설명하겠다.

【필; 匹】

한국어와 중국어 분류사 ‘필(匹)’은 모두 포목·비단 등은 옷감의 길이 단위로 쓰인다. 한국어의 분류사 ‘필’은 소, 말 등 가축에 다 쓰이지만, 중국어의 분류사 ‘匹’은 오직 말의 수를 세는 데만 쓰인다.

(9) a. 소/말 한 필

b. 비단 열 필

(10) a. 三匹馬/驪子(세 필의 말/노새)

b. 十匹絲綢(비단 열 필)

위의 (9a)에서 한국어 분류사 ‘필’은 마소를 세는 단위로 쓰이고, (9b)에서 포목·비단 등은 옷감의 길이를 세는 단위로 쓰인다. 중국어의 분류사 ‘匹’은 (10a)에서 ‘소’와 같은 가축의 수량을 세는데 사용되지 않고 운송수단으로 사용되는 가축 ‘말’에만 쓰이고, (10b)에서 비단과 같은 옷감의 길이를 세는 단위로 쓰인다.

【두; 頭】

한국어의 분류사 ‘두’는 중국어의 분류사 ‘두(頭)’에 비해 한정적이다. 중국어에서는 ‘말’에 대한 분류사로는 ‘필’을, 소에는 ‘頭’를 사용함으로써 분업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분류사 ‘필’이 ‘소’나 ‘말’에 모두 사용될 수 있다. 이로부터 중국어는 한국어와 비교할 때 분류사가 매우 풍부하게 발달되어 있는 언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

(11) 소(양, 돼지, 말……) 50두

(12) a. 一頭牛(소 한 마리)

b. 兩頭大蒜(마늘 두 통)

c. 一頭完了, 又是一頭(한 가지 일이 끝나면 또 한 가지 일이 있다.)

위의 (11)에서 한국어의 분류사 ‘두’는 일반적으로 소, 양, 돼지 등 네 발을 가진 짐승과 큰 머리를 가진 동물의 수량을 세는 단위로 쓰인다. 중국어의 분류사 ‘頭’는 (12a)에서 ‘말’을 제외하고 한국어 분류사 ‘두’와 같은 용법으로 쓰이고 있다. 하지만 (12b)처럼 ‘마늘’과 같은 머리 모양의 사물을 셀 수도 있고 (12c)처럼 사건이나 일의 수를 세는 단위로서 구어에 많이 사용되고 주로 숫자 ‘一, 兩(이), 畿(몇)’ 뒤에 사용된다.

【수; 首】

한국어와 ‘수’는 시가(詩歌)에 대한 분류사로 쓰일 뿐만 아니라 낱짐승을 분류할 때에도 쓰이는데 반해 중국어에서는 시가의 수량단위로만 사용되고 짐짐승을 셀 때는 사용하지 못한다. 따라서 ‘수(首)’는 한국어에서 더 넓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13) a. 오리 한 수/마리

b. 노래/시 한 수

(14) a. 一首歌(노래 한 곡)

b. 唐詩三百首(당시 삼백 수)

위의 (13a)에서 한국어의 분류사 ‘수’는 ‘마리’의 뜻으로 일부분 가축, 특히 낱짐승의 수량을 셀 때 쓰인다. 짐짐승을 셀 때 ‘수’와 ‘마리’는 모두 동물에 쓰이지만 그들의 구별은 ‘수’는 입말에 쓰이고 ‘마리’는 문어에 쓰인다. 그리고 (13b)에서 시나 노래를 세는 단위로 쓰인다. 중국어의 분류사 ‘首’의 本義는 ‘머리’이며, 후에 ‘우두머리’의 의미로 사용되었다.²⁵⁾고대에서는 시나 가곡에 대한 분류사로 사용되었고,

25) 漢字大字典編輯委員會(1993-6: 1870)

지금도 (14a)와 (14b)처럼 노래나 시를 분류할 때 사용된다.

【미; 尾】

한국어와 중국어의 분류사 ‘미(尾)’는 모두 물고기를 세는 단위로 같은 용법으로 쓰인다.

(15) 생선 이십 미

(16) a. 一尾鯉魚(잉어 한 마리)

b. 一條魚(물고기 한 마리)

한국어의 분류사 ‘미’는 (15)에서 물고기를 세는 단위로 쓰인다. 중국어의 분류사 ‘尾’는 (16a)에서 고대 중국에서 물고기를 세는 단위로 사용되지만 현대에 와서는 주로 (16b)처럼 분류사 ‘條(마리)’를 대신해서 쓴다.

3.1.1.3 식물에 사용하는 분류사

여기에서는 식물에 사용하는 한국어의 한자어 분류사와 중국어의 분류사 ‘주(株)’를 예로 들어 설명하겠다.

【주; 株】

한국어와 중국어의 분류사 ‘주(株)’는 나무에 쓰일 수 있는 점에서 차이가 없으나 중국어의 분류사 ‘株’는 주로 문어에 쓰이고 한국어의 ‘주’는 나무를 세는 외에 주권이나 주식의 수도 셀 수 있다.

(17) a. 느타리 나무 한 주

b. 채권 100주

(18) a. 松柏千株(소나무와 잣나무 천 그루)

b. 兩株梨樹(배나무 두 그루)

c. 一棵樹(나무 한 그루)

한국어의 분류사 ‘주’는 (17a)에서 나무를 셀 때 쓰이고, (17b)에서 수량을 나타내는 말 뒤에 쓰여 주권이나 주식을 세는 단위로 쓰인다. 중국어의 분류사 ‘株’는 (18a)와 (18b)처럼 나무, 꽃, 풀 등 보통 살아있는 식물을 세는 단위로 쓰인다. 그러나 이는 고대 중국에서 많이 쓰였지만 현대 중국에서 보통 (18c)처럼 분류사 ‘棵(그루)’를 사용한다.

3.1.1.4 기계·도구에 사용하는 분류사

여기에서는 식물에 사용하는 한국어의 한자어 분류사와 중국어의 분류사 ‘량(輛)’, ‘수(首)’, ‘척(隻)’, ‘대(臺)’, ‘문(門)’을 예로 들어 설명하겠다.

【량; 輛】

한국어와 중국어의 분류사 ‘량(輛)’은 차량의 수를 세는 단위이다.

- (19) a. 열차 한 량
- b. 여섯 량짜리 전철
- c. 비행기 한 대
- (20) a. 一輛汽車(자동차 한 대)
- b. 一列火車(기차 한 대)
- c. 一架飛機(비행기 한 대)

위의 (19)에서 보듯이 한국어의 분류사 ‘량’은 비행기를 제외한 모든 교통수단을 세는 단위로 쓰인다. 중국어 분류사 ‘輛’은 (20a)처럼 기차를 제외한 차의 수량을 세는 단위로 사용하지만 열차의 수량을 셀 때는 (20b)처럼 ‘輛’대신 ‘列(열)’을 쓰고, 비행기의 수량을 셀 때는 (20c)처럼 ‘架(가)’를 쓴다.

【수; 艘】

한국어 분류사 ‘수’와 중국어의 분류사 ‘艘’는 똑같이 선박을 세는 단위로 쓰이고

있다. 중국어의 ‘艘’는 한국어의 분류사 ‘척’에 해당되는데, 다만 중국어의 ‘척’은 큰 선박에만 쓰이며, 한국어의 분류사 ‘척’은 모든 선박의 수효를 나타낼 수 있다.

(21) 무역선 10척/척(隻)

(22) a. 一艘遠洋貨輪(원양 화물선 한 척)

b. 一艘軍艦(군함 한 척)

한국어의 분류사 ‘수’는 (21)에서 선박을 세는 단위로 쓰인다. 중국어의 분류사 ‘艘’는 (22a)와 (22b)에서 큰 선박을 세는 단위이다.

【대; 臺】

한국어와 중국어의 분류사 ‘대(臺)’는 모두 기계나 설비를 셀 때 쓰인다. 한국어 분류사 ‘대’는 교통도구, 기계, 설비 등에서 명사와 결합이 더 광범하다. 중국어에서 차량을 셀 때 쓰이는 분류사는 ‘輛(량)’이다. 그리고 공연의 횟수를 셀 때는 중국어에서 ‘臺’를 쓰지만 한국어에서는 분류사 ‘차례’를 쓴다.

(23) 자동차/비행기/컴퓨터 한 대

(24) a. 一臺機器(기계 한 대)

b. 一臺拖拉機(트랙터 한 대)

c. 一臺戲(공연 한 차례)

한국어의 분류사 ‘대’는 (23)과 같이 자동차나 비행기 또는 기계 따위를 세는 단위로 쓰인다. 중국어의 분류사 ‘臺’는 (24a)와 (24b)에서 기계 따위를 세는 단위로 쓰이고, (24c)에서 연극의 공연 횟수 따위를 셀 때 쓰인다.

【문; 門】

한국어의 분류사 ‘문’과 중국어의 분류사 ‘門’은 대포를 셀 때만 같은 용법으로 쓰이고, 중국어의 분류사 ‘門’과 한국어의 분류사 ‘문’과 달리 다양한 용법을 갖고 있다.

(25) 대포 다섯 문

(26) a. 一門大砲(대포 한 대)

b. 一門技術(기술 한 가지)

c. 一門學問(학문 하나)

한국어의 분류사 ‘문’은 (25)처럼 대포나 기관총 따위를 세는 단위로 쓰인다. 중국어의 분류사 ‘門’은 (26a)에서 대포를 세는 단위로 쓰이고, (26b)와 (26c)에서 학문이나 기술 따위의 항목을 세는 단위로 쓰인다.

【척; 隻】

한국어의 분류사 ‘척’은 배에 대한 분류사로만 제한적으로 사용되고 있지만 중국어의 분류사 ‘隻’은 매우 다양한 대상에 쓰이고 사용범위도 더 광범하다.

(27) a. 잠수함 한 척

b. 어선 세 척

(28) a. 兩隻鳥(鷄, 蟲, 蝴蝶……) 두 마리의 새(닭, 벌레, 나비……)

b. 一隻手(한 쪽 손)

c. 一隻小船(배 한 척)

d. 一艘潛水艇(잠수함 한 척)

한국어의 분류사 ‘척’은 (27a)와 (27b)를 보면 모두 배의 수량을 세는 단위로만 쓰인다. 중국어의 분류사 ‘隻’은 짐나라 때에 사용되었는데 현재에 이르기까지 계속 물건, 짐승, 배의 수량을 세는 단위로 사용되고 있다. (28a)는 날짐승이나 세는 단위를 나타내고 (28b)는 쪽·짝·쌍을 이루는 물건을 세는 단위를 나타내고 (28c)는 배를 세는 단위로 쓰인다. 그러나 잠수함과 같은 큰 배를 셀 때는 (28d)처럼 분류사 ‘隻’을 대신하여 ‘艘(수)’를 주로 사용한다.

3.1.1.5 사물의 모양에 사용하는 분류사

여기에서는 사물의 모양에 사용하는 한국어의 분류사와 중국어의 분류사 ‘폭(幅)’, ‘장(張)’, ‘매(枚)’를 예로 들어 설명하겠다.

【폭; 幅】

한국어와 중국어의 분류사 ‘폭(幅)’은 모두 포목, 종이, 그림 따위를 세는 단위로 쓰이므로 한국어의 분류사 ‘폭’과 중국어의 분류사 ‘幅’은 같은 용법으로 쓰인다.

- (29) a. 그림 한 폭
- b. 열두 폭 치마
- (30) a. 三幅畫(세 폭의 그림)
- b. 一幅布(한 폭의 천)

위의 (29a)에서 한국어의 분류사 ‘폭’은 그림, 족자 따위를 세는 단위로 쓰이고, (29b)에서 수량을 나타내는 말 뒤에 쓰여 하나로 연결하려고 같은 길이로 나누어 놓은 종이, 널, 천 따위의 조각을 세는 단위로 쓰인다. 중국어의 분류사 ‘幅’은 (30a)에서 포목, 종이, 그림 따위를 세는 단위로 쓰이고, (30b)에서 그림 따위를 세는 단위로 쓰인다.

【장; 張】

한국어와 중국어의 분류사 ‘장(張)’은 모두 종이, 모피, 활 등 폭이 넓거나 펼 수 있는 물건을 세는 단위이다. 그러나 한국어의 분류사 ‘장’은 중세에서 ‘의자’의 수량을 표시할 수 있지만 현대에 와서 의자의 수량 단위는 ‘장’으로 쓰이지 못하고 ‘개’를 사용한다. 그리고 한국어의 ‘장’은 옷을 셀 때 사용할 수 있지만, 중국어의 ‘張’은 옷을 셀 때는 분류사 ‘件(별)’을 사용한다(一件衣服). 이 외에 책상, 의자, 사람과 동물의 얼굴을 셀 때에도 사용한다.

- (31) a. 시험지 한 장

- b. 티셔츠 한 장
 - c. 유리 열 장
 - d. 구름 한 장 없이 맑은 하늘
- (32) a. 一張椅子(책상 한 개)
- b. 一張紙(종이 한 장)
 - c. 一張弓(활 하나)
 - d. 一張嘴(입 하나)

한국어의 분류사는 이전의 언해문(諺解文)자료에는 ‘당(=장)’이 ‘張’의 번역차용어로서 ‘의자’에 대한 분류사로 사용된 용례가 보이는데, 이것은 한국어 분류사 ‘장’이 중국어 ‘張’에서 유래되었음을 알려준다. 현재는 의자에 사용되던 분류사의 의미는 소실되었고, (31a), (31b), (31c)에서 보듯이 ‘종이, 티셔츠, 유리’ 등 얇고 넓적한 조각을 세는 단위로 쓰이고, (31d)에서 얇은 구름의 덩이를 세는 단위로 쓰인다. 중국어 분류사 ‘張’은 (32a)와 (32b)에서는 종이, 모피, 책상, 의자, 침대 등의 넓은 표면을 가진 것을 세는 단위로 쓰이고, (32c)와 (32d)에서는 활, 입 등을 세는 단위로 쓰인다.

【매; 枚】

한국어와 중국어의 분류사 ‘매(枚)’는 모두 우표의 수량을 나타내고, 현대 한국어나 중국어에서 분류사 ‘매(枚)’의 사용빈도가 점차 적어지고, 분류사 ‘장’으로 대체되고 있다. 한국어의 분류사 ‘매’는 주로 얇은 물건을 셀 때 사용한다. 하지만 중국어의 ‘枚’는 주로 부피가 작은 물건을 셀 때 사용될 수 있는데 ‘個(개)’에 해당된다. 즉 ‘枚’로 세는 물건은 다 ‘個(개)’로 교체해서 할 수 있지만, 모든 ‘個’는 ‘枚’로 바꾸어 사용할 수는 없다.

- (33) a. 원고지로 환산하면 대체로 천 매가 훨씬 넘을 것이다.
- b. 우표 한 매 주십시오.
- (34) a. 三枚獎章(메달 세 매)
- b. 一枚郵票(우표 한 매)
 - c. 一枚硬幣(동전 한 닢)

d. 一枚炸彈(폭탄 하나)

위의 (33a)에서 한국어의 분류사 ‘매’는 주로 원고지 같은 종이나 얇은 물건을 셀 때 사용하고, 구어에서 종이나 널판자의 단위를 표시할 때 일반적으로 ‘張’으로 대체한다. 그리고 (33b)에서 우표의 매수도 표시 한다. 중국어의 분류사 ‘枚’는 (34a)처럼 주로 작고 둥글고 납작한 물건에 사용된다. 다만 (34b)처럼 우표수량을 나타낼 경우는 매가 붙을 수 있다. (34c)와 (34d)처럼 동전과 탄약에도 쓰인다.

3.1.1.6 건축물에 사용하는 분류사

여기에서는 건축물에 사용하는 한국어와 중국어의 분류사 ‘층(層)’, ‘동(棟)’, ‘좌(座)’를 예로 들어 설명하겠다.

【층; 層】

한국어의 분류사 ‘층’은 주로 건물의 층수를 셀 때에만 중국어의 분류사 ‘層’에 대응된다.

- (35) a. 건물 23층에 회사가 있다.
- b. 지하 1층에 주차장이 있다.
- (36) a. 五層樓(5층 빌딩)
- b. 還有一層意味(한 가지 의미가 더 있다.)
- c. 圍着幾層人(사람들이 겹겹이 둘러있다.)

한국어의 분류사 ‘층’은 (35)처럼 수량을 나타내는 말 뒤에 쓰여 위로 포개어 짓는 건물에서, 같은 높이의 겹을 세는 단위이다. 중국어의 분류사 ‘層’은 (36a)에서 층으로 쌓아 올린 물체를 세는 단위로 쓰이고, (36b)에서 ‘일부분·일종·가지’ 등 항목으로 나뉘는 사항이나 도리에 쓰이고, (36c)에서는 겹쳐진 사람을 나타낼 때에 쓰인다.

【동; 棟】

한국어 분류사 ‘동’과 중국어 분류사 ‘棟’은 모두 집채나 건물의 수효를 헤아리는 단위로 쓰인다.

- (37) a. 아파트/주택 열 동
b. 현대 아파트 제3동 28호
(38) 一棟樓/公寓(빌딩/아파트 한 동)

한국어의 분류사 ‘동’은 (37a)에서 건물의 수효를 세는 단위로 쓰이고 (37b)처럼 아파트 따위의 건물의 번호에 붙는 단위로도 쓰인다. 중국어의 분류사 ‘棟’은 (38)에서는 빌딩과 같은 건축물을 세는 단위로 쓰인다.

【좌; 座】

한국어의 분류사 ‘좌’는 집이나 불상 따위의 수효를 세지만, 중국어의 분류사 ‘座’의 의미는 더 넓게 쓰인다. 그리고 중국어의 분류사 ‘座’는 한국어의 분류사 ‘채’에 해당된다.

- (39) 불상/한옥 1좌
(40) 一座山/私宅/水庫/大砲(산/사택/댐/대포 한 채)

한국어 분류사 ‘좌’는 (39)에서 집, 불상 따위의 일정한 물체를 세는 단위로 쓰인다. 중국어의 분류사 ‘座’는 (40)을 보면 산, 건축물, 교량, 대포 따위의 비교적 크고 튼튼한 것이나 고정된 물체를 세는 데 쓰인다.

3.1.1.7 의류에 사용하는 분류사

여기에서 의류에 사용하는 한국어와 중국어의 대표적인 분류사 ‘장(張)’을 예로 설명하겠다.

【장; 張】

한국어의 ‘장’은 천으로 된 옷에 쓰이지만 중국어의 ‘張’은 종이, 모피 등에 쓰인다. 두 분류사의 용법은 전혀 다르다.

(41) 와이셔츠/팬티 한 장

(42) a. 一張紙/皮/弓(종이/거죽 한 장)

b. 一張弓(활 하나)

한국어의 분류사 장은 (41)에서 셔츠, 팬티, 치마 등 천으로 만든 의류를 세는 단위로 쓰인다. 중국어의 분류사 ‘張’은 (42)에서 보듯이 종이, 모피, 활 등 폭이 넓거나 펼 수 있는 물건을 세는 단위로 쓰인다.

3.1.1.8 문자·문화에 사용하는 분류사

여기서는 문자·문화에 사용하는 한국어와 중국어의 분류사 ‘권(卷)’, ‘편(篇)’, ‘부(部)’, ‘절(節)’, ‘장(章)’, ‘통(通)’을 예로 들어 설명하겠다.

【권; 卷】

한국어와 중국어의 ‘권(卷)’은 모두 책을 셀 때 사용하지만 중국에서는 보통 ‘本(一本書)’을 쓴다. 한국어의 분류사 ‘권’은 중국어의 분류사 ‘本’에 해당되고 보편적으로 쓰이고 있다. 또 영화 필름의 길이의 단위를 나타내거나 집계 분류사의 역할도 하는 점에서 중국어 분류사 ‘卷’과 큰 차이점이 있다.

(43) a. 책 한 권

b. 제3권에 수록 된 내용

c. 고려사 1권

d. 영화 필름 한 권은 206미터이다.

(44) a. 魯迅全集共有12卷(노신 전집은 모두 12권이다.)

b. 那個圖書館藏書達10萬卷(그 도서관은 장서가 10만 권 있다.)

c. 兩卷紙(종이 두 두루마리)

한국어의 분류사 ‘권’은 (43a)처럼 책의 수량을 나타내는 단위로 쓰이고 (43b)처럼 전집 등 묶음 된 책의 차례를 나타내는 단위로 쓰이고 (43c)처럼 옛날 서적의 편찬의 단위로 쓰이고 (43d)처럼 영화 필름의 길이의 단위로 쓰인다. 중국어 분류사 ‘卷’은 (44a), (44b), (44c)처럼 한 세트의 책 중 낱개를 세는 단위로서 藏書를 세는 단위로 쓰인다.

【편; 篇】

한국어나 중국어의 ‘篇(편)’은 모두 일정한 형식을 갖춘 문장을 셀 때 사용한다. 차이점은 한국어의 분류사 ‘편’은 영화나 노래 등을 셀 때 사용할 수 있지만 중국어에서의 ‘篇’은 노래, 영화 등을 셀 때 사용될 수 없다.

(45) a. 시/수필/영화 한 편

b. 문법 편

c. 제1편 제2장

(46) a. 一篇小說/文章/日記(세 편의 소설/문장/일기)

b. 完成了三篇作業(6쪽의 숙제를 완성했다.)

한국어의 분류사 ‘편’은 (45a)에서 보듯이 시문이나 영화, 노래 등의 수효를 세는 단위로 쓰이고, (45b)에서 형식이나 내용 따위가 다른 글을 구별하여 이르는 말로 쓰이고, (45c)에서는 책의 내용을 일정한 단락으로 크게 다른 한 부분의 단위로 쓰인다. 중국어의 분류사 ‘篇’은 (46a)에서 보듯이 일정한 형식을 갖춘 문장을 세는 단위로 쓰이고 (46b)에서는 글이 쓰이거나 인쇄한 종이를 세는 단위로 ‘一篇’은 2쪽에 해당된다.

【부; 部】

한국어나 중국어의 ‘부(部)’는 모두 단행본 서적에 대한 분류사로 사용되고 있다. 분류사 ‘부(部)’는 한국어에서 신문을 셀 때도 사용되지만 중국어에서 신문을 셀 때

사용할 수 없고 그 대신 ‘張(장)’을 사용한다.

- (47) a. 잡지/신문 5부
b. 이 자료를 다섯 부 복사해서 주십시오.
c. 이 소설의 제3부는 주인공이 고문을 받고 죽는 이야기이다.
d. 양 한 보를 꺼내서 소금을 뿌려서 서피를 내고 이겼다.²⁶⁾
- (48) a. 一部車(차 한 대)
b. 一部電話/機器(전화/기계 한 대)
c. 一部小說/字典(소설/사전 1부)
d. 一部電影(영화 한 편)

한국어의 분류사 ‘부’는 (47a)와 (47b)에서 ‘잡지, 신문’ 또는 ‘복사물’ 등에 사용되며, (47c)에서 전체를 어떤 기준에 의해 나누었을 때 그 중의 한 부분을 나타내기도 한다. 그리고 (47d)에서 보면 제한적인 쓰임이기는 하지만 ‘보(部)’로 독음되어, ‘짐승의 고기부위’나 ‘내장기관’을 수량화할 때 쓰이고 있다. 중국어 분류사 ‘部’는 (48a)와 (48b)에서 차량, 전화, 기계를 세는 단위로 쓰이고, (48c)에서 소설, 서적 따위를 세는 단위로서 ‘部’로 책을 셀 때는 주로 두꺼운 책이나 질로 된 책의 수효를 나타낸다. 또 (48d)처럼 영화를 세는 단위로도 쓰인다.

【절; 節】

한국어나 중국어의 분류사 ‘절(節)’은 모두 문장의 단락을 셀 때 사용한다. 하지만 한국어의 분류사 ‘절’은 중국어의 분류사 ‘節’보다 명사와 결합범위가 좁다.

- (49) a. 한 편의 글이 네 절로 이루어져 있다.
b. 애국가를 한 절만 부르자.
c. 가사의 절마다 후렴구가 달려 있다.
- (50) a. 一節甘蔗(사탕수수 한 개)
b. 兩節車廂(두 량의 차 트렁크)

26) 한글학회 편(1992: 1790)

- c. 那首詩有4節(그 시는 네 절로 되어 있다.)
- d. 這段文章共分三章七節(이 문장은 3장 7절로 되어 있다.)

위의 (49a)는 한국어의 분류사 ‘절’은 글의 내용을 여러 단락으로 나눈 그중 한 단락을 나타내고, (49b)와 (49c)에서는 한 제목 아래에 여러 덩어리로 이루어진 가사의 각 덩어리에 쓰인다. 중국어의 분류사 ‘節’은 (50a)와 (50b)에서 마디로 된 물건을 세는데 쓰이고, (50c)와 (50d)에서 시와 문장의 단락을 가리킬 때 사용한다.

【장; 章】

중국어의 분류사 ‘章’과 한국어의 분류사 ‘장’은 모두 문장이나 문서에서 내용을 구분하는 단위에 쓰인다. 다만 한국어의 분류사 ‘장’은 법률문서에는 쓸 수 없다.

- (51) a. 책의 내용은 모두 다섯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 b. 첫째 장은 서론으로 삼는다.
- c. 시조는 세 장으로 되었다.
- d. 제1편 제3장 제 6절
- (52) a. 全書共有三章(책이 모두 세 장으로 구성되었다.)
- b. 第三章 第二節(제3장 제2절)
- c. 法令凡二百四十九章(법률 조령은 모두 249개 조가 있다.)

한국어의 분류사 ‘장’은 (51)에서 수사 뒤에 쓰이며 문장이나 문서에서 내용을 구분하는 단위로 쓰인다. 중국어의 분류사 ‘章’은 (52a)와 (52b)에서 보듯이 가곡, 시문 문장 비교적 큰 작품의 단락을 셀 때 사용하고 (52c)에서는 공문서의 항목에도 쓰인다.

【장; 場】

한국어의 분류사 ‘장’과 중국어 분류사 ‘場’은 현저한 차이가 있다. 한국어의 분류사 ‘장’은 연극에만 쓰일 수 있고, 중국어의 분류사 ‘場’은 체육, 문예, 오락, 활동 등에 쓰이고, 또 행위의 횟수를 세는 데도 쓰인다.

- (53) a. 2막 5장
 b. 제3막은 5장으로 되어 있다.
- (54) a. 一場電影(영화 1회)
 b. 一場比賽/戰爭(경기/전쟁 한 차례)
 c. 下一場雨(한 바닷 소낙비가 쏟아지다.)
 d. 做了一場夢(한 차례 꿈을 꾸었다.)

한국어의 분류사 ‘장’은 (53a)와 (53b)에서 연극에서 막을 다시 나눈 작은 단락으로 쓰인다. 중국어 분류사 ‘場’은 (54a)와 (54b)에서 문예, 오락, 체육 활동, 군사 활동의 횟수를 세는 단위로 쓰이고, (54c)와 (54d)에서 일의 경과나 자연 현상 따위의 횟수를 세는 단위로 쓰인다.

【통; 通】

한국어와 중국어의 ‘통(通)’은 모두 문서에 대한 분류사로 쓰이지만 한국어 ‘통’은 편지를 분류할 때나 전화를 거는 동작의 횟수에 사용되며, 중국에서 편지에 쓰는 분류사는 ‘封’을 사용하며, 한국에는 없는 용법으로 악기를 연주하는 횟수나 언어행위를 분류할 때 사용하는 차이점이 있다.

- (55) a. 주민등록 등본이나 두 통 떼어 보내요.
 b. 전화 한 통이라도 하세요.
- (56) a. 一通文書(문서 한 통)
 b. 打了三通鼓(북을 세 번 치다)
 c. 爭論了一通(한바탕 쟁론했다.)

한국어의 분류사 ‘통’은 편지나 문서에 대한 의미는 (55)와 같이 전보, 편지와 전화를 거는 동작의 횟수 등에 쓰이고 있다.²⁷⁾ 중국어의 ‘通’은 (56a)처럼 서면어에서 문서에 대한 분류사로 쓰이며, (56b)처럼 고대 중국어에서는 악기를 연주하는 동작

27) 이전 한국에서는 ‘통’이 편지나 문서 등의 수효를 헤아리는 단위나 북, 각, 소리와 같은 악기를 치거나 부는 횟수를 나타낼 때 쓰였다고 한다(박성훈1998: 504-5).

을 나타내고, (56c)에서 긴 시간이나 노력을 필요로 하는 언어행위 등을 분류할 때 쓰인다.

3.1.1.9 놀이·사건에 사용하는 분류사

여기에서는 놀이·사건에 사용하는 한국어와 중국어의 분류사 ‘국(局)’, ‘건(件)’을 예로 들어 설명하겠다.

【국; 局】

한국어나 중국어의 분류사 ‘국(局)’은 모두 시합활동을 셀 때 사용한다. ‘국(局)’은 한국어에서 바둑, 장기 종류활동에만 사용되지만, 중국어에서 바둑 그리고 기타 시합 활동에 모두 사용된다.

(57) a. 제3국에서 패하다.

b. 결승의 제1국에서 이겼다.

c. 바둑 한 국/판

(58) a. 下一局棋(바둑 한 번 두다.)

b. 排球比賽打滿了5局(배구시합은 5번 진행했다.)

한국어의 분류사 ‘국’은 (57a)와 (57b)에서 운동·오락 등에서 바둑이나 장기 따위에서, 승부를 내는 판수를 셀 때 사용하고, ‘국’은 문어에 자주 쓰는데 구어에서는 (57c)에서 보다시피 ‘판’을 자주 사용한다. 중국어의 분류사 ‘局’은 (58)에서 바둑이나 시합 활동을 셀 때 사용한다.

【건; 件】

분류사 ‘건(件)’은 한국어와 중국어에서 모두 사건이나 일 등을 대상으로 쓰이고 있다. 한국에서는 사고 및 거래항목에 대한 분류사로 사용됨으로써 부분적으로 다른 의미로 쓰이고 있고 기구와 옷을 셀 때는 일반적으로 분류사 ‘개’와 ‘벌’을 사용하는 반면에 중국에서는 의복 및 소수의 개체 사물에 대한 분류사로 사용한다.

(59) a. 서류/교통사고/화재 두 건

(60) a. 一件事情/(한 가지 일)

b. 一件禮物(선물 하나)

c. 一件襯衣(셔츠 한 벌)

한국어의 분류사 ‘건’은 (59)에서 일이나 사건 및 서류 안건 등을 분류할 때 사용한다. 중국어의 분류사 ‘件’은 (60)에서 보듯이 사물, 사건이나 안건 등 수량을 세는 단위로 쓰인다.

3.1.1.10 용기·기구에 사용하는 분류사

여기에서는 용기·기구에 사용하는 한국어와 중국어의 분류사 ‘갑(盒)’, ‘병(瓶)’, ‘잔(盞)’을 예로 들어 설명하겠다.

【갑; 匣】

분류사 ‘갑’은 모두 작은 상자를 세는 단위로 쓰인다. 한국어의 분류사 ‘갑(匣)’은 중국어에서 명사로 쓰이고, 그에 해당되는 분류사는 ‘匣’이다.

(61) 담배/성냥 두 갑

(62) a. 一匣盒飯/(도시락 하나)

b. 一匣火柴(성냥 한 갑)

한국어의 분류사 ‘갑(匣)’은 (61)처럼 작은 상자를 세는 단위이다. 중국어 분류사 ‘匣’은 ‘盒’과 같이 쓰인다. (62a)와 (62b)에서 보듯이 작은 상자를 셀 때 쓰인다.

【병; 瓶】

한국어 분류사 ‘병’과 중국어 분류사 ‘瓶’은 비슷한 용법으로 쓰이고 있다.

(63) a. 소화제 한 병은 사와라.

b. 사내는 창가에 자리를 잡으면서 소주를 두 병이나 시켰다.

(64) 一瓶水/汽水(물/사이다 한 병)

한국어의 분류사 ‘병’은 (63)을 보듯이 한 병에 가득 담을 만큼의 분량을 나타내는 단위를 나타낸다. 중국어의 분류사 ‘瓶’은 (64)처럼 ‘술, 음료’ 등과 같이 병에 담을 물건을 셀 때 쓰인다.

【잔; 盏】

한국어의 ‘잔’은 ‘잔에 담긴 액체’에 대한 분류사로만 쓰인다. 중국어의 ‘盏’은 ‘燈’에 대한 분류사로 쓰인다. 현재 한국어 분류사 ‘잔’은 중국어의 분류사 ‘杯(컵)’과 동일한 의미로 술이나 음료의 수량을 계량하는데 사용한다.

(65) a. 술 한 잔 합시다.

b. 울무차 한 잔과 커피 한 잔 주세요.

(66) a. 一盏電燈(전등 하나)

b. 這屋子里得安兩盏電燈(이 방에는 전등 두 개를 달아야 한다.)

한국어의 분류사 ‘잔’은 (65)와 같이 잔에 담긴 술·차·물을 세는 단위로 쓰인다. 중국어의 분류사 ‘盏’은 (66)에서 보듯이 등(燈)에만 쓰이며, ‘杯(컵)’과는 통용할 수 없다. 즉 ‘盏’은 등에만 적용되고 ‘杯’는 ‘컵·잔’의 뜻으로 액체의 수량 단위에 쓰인다.

3.1.1.11 나이·점수·등급에 사용하는 분류사

나이·점수·등급에 사용하는 한국어와 중국어의 분류사로는 ‘세(歲)’, ‘분(分)’, ‘점(點)’, ‘급(級)’ 등이 있다.

【세; 歲】

한국어와 중국어의 분류사 ‘세(歲)’는 일반적인 상황에서 나이를 수량화할 때 사용된다. 중국에서는 10살 이하의 애들한테는 분류사 ‘歲’를 사용하고, 존경의 의미를 나타낼 때에는 ‘高齡(고령)’을 사용한다. 한국어에도 마찬가지로 나이가 드신 분한테는 ‘세’를 쓴다.

- (67) a. 만 육십 세.
b. 그분은 오십 세인데도 아직 정정하다.
(68) a. 孩子六歲了(애가 여섯 살이 되었다.)
b. 爺爺今年60高齡(할아버지는 올해에 60세이다.)

한국어의 분류사 ‘세’는 (67)에서 한자어 수 뒤에 쓰여 나이를 세는 단위로 쓰인다. 중국어의 분류사 ‘歲’는 (68a)에서 중국어의 분류사 ‘歲’는 10살 이하의 애들한테만 분류사 ‘歲’를 사용하고, (68b)에서 존경의 의미를 나타낼 때에는 ‘高齡’을 사용한다.

【점; 點】

한국어의 분류사 ‘점(點)’은 한자어이지만 중국어의 분류사 ‘點’과 완전히 다르게 쓰이고 있다.

- (69) a. 성적이 100점이다.
b. 벽시계가 아홉시(點)를 쳤다.
c. 의류 열 점 기증했다.
d. 쇠고기 몇 점을 집어먹다.
e. 너 점 바둑
(70) a. 一點小事(약간의 사소한 일)
b. 沒有一點力气(힘이 조금도 없다.)
c. 幾點意見/理由(몇 가지 의견/이유)
d. 現在是下午一點(지금은 오후 한시이다.)

한국어의 분류사 ‘점(點)’은 (69a)에서는 성적을 나타내는 단위로 쓰이고, (69b)는 시간을 나타내는 단위로 쓰이고, (69c)에서는 옷이나 그릇 등을 세는 단위로 쓰이고, (69d)에서는 살코기 등의 작은 조각들을 셀 때 쓰는 단위로 쓰이고, (69e)에서는 바둑에서 바둑판의 눈이나 바둑 둘의 수효를 세는 단위로 쓰인다. 중국어 분류사 ‘點’은 (70a)와 (70b)에서 보듯이 조금·약간의 뜻을 나타내고 (70c)에서 의견, 이유를 세는 데에 쓰이고 (70d)에서 시간을 세는 단위로 쓰인다.

【급; 級】

한국어나 중국어의 분류사 ‘급(級)’은 모두 등급을 나타낼 때 사용한다. 하지만 한국어의 ‘급’은 ‘물고기의 수량’을 세는 단위로도 쓰인다. 이는 중국어의 분류사 ‘級’을 차용하였지만 한국에서 새로운 의미가 생겼기 때문이다.

(71) a. 바둑/태권도 실력은 삼 급쯤 된다.

b. 5급 행정직 공무원

c. 청어(青魚) 삼 급

(72) a. 五級台階(계단 5급)

b. 七級台風(7급 태풍)

c. 高級教師(고급교사)

한국어 분류사 ‘급’은 (71a)와 (71b)에서 보듯이 ‘기술에 대한 등급의 정도’ 및 ‘직위의 등급’을 나타내며, 그 외에도 (71c)처럼 물고기 스무 마리를 묶어서 세는 단위로 쓰이기도 한다.²⁸⁾ 중국어 분류사 ‘級’은 (72a)를 보면 계단이나 탑의 단계를 표시하고, (72b)에서 충력이나 태풍의 세기를 표시하고, (72c)에서 실력이나 관직의 등급을 나타낸다.

28) 박성훈(1998: 86)에 의하면 이미 조선후기 한문 자료에 ‘급’이 물고기 스무 마리를 묶어서 단위로 사용했던 용례가 보이고 있는데, 이것은 ‘두름’의 이두(吏讀)표기로, 물고기를 한 줄에 열 마리씩 두 줄로 엮은 스무 마리를 단위로 세는데 사용했으며, 이 의미는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3.1.1.12 횃수 · 차례를 사용하는 분류사

【번; 番】

분류사 ‘번(番)’은 모두 동작의 횃수를 나타내지만, 한국어 분류사 ‘번’은 단일성 동작의 횃수를 나타내고, 중국어의 분류사 ‘番’은 집체성 동작의 횃수를 나타낸다.

- (73) a. 3번/ 여러 번
b. 벌을 한두 번이 아니었다.
- (74) a. 思考一番(한 차례 생각하다.)
b. 對他進行了一番教育(그를 한 바탕 가르쳤다.)
c. 糧食產量翻了一番(식량 생산량이 배가 넘었다.)
d. 別有一番天地(또 다른 세상이 있다.)

한국어의 분류사 ‘번’은 (73)에서 보듯이 동작의 횃수나 차례를 셀 때 쓰인다. 중국어의 분류사 ‘番’은 (74a)와 (74b)에서 보듯이 시간이나 노력이 필요하거나 과정이 비교적 긴 행동이나 일에 사용되고, (74c)에서는 배(倍)를 나타내고 (74d)에서는 종류·가지의 뜻을 나타낸다.

【차; 次】

한국어와 중국어의 분류사 ‘차(次)’는 모두 동작의 횃수를 세는 단위로 쓰지만, 중국에서 수삼(水蓼)의 무게를 나타낼 때 분류사 ‘次’를 사용할 수 없다. 한국에서 수삼의 무게를 다는 법은 특수하다. 사고팔 때 한 근 두 근 하지 않고, 한 차(次) 두 차 등으로 거래된다. 한 차는 스무 냥을 말하는데, 근으로 따지면 한 근 닉 냥이 되고 750그램이다.

- (75) a. 그들은 선생님 댁을 수십 차 방문했다.
b. 수삼 한 차
- (76) a. 一次勝利(한 번의 승리)
b. 調查了三次.(세 번 조사했다.)

c. 實驗了十八次才成功.(열여덟 번 실험을 하고서야 비로소 성공했다.)

한국어의 분류사 ‘차(次)’는 한자어로서 (75a)처럼 주로 수사 뒤에 쓰여 동작의 횟수의 뜻을 나타내고, (75b)에서 수삼의 무게를 나타낸다. 중국어 분류사 ‘次’는 (76)에서 동작의 횟수를 나타내거나 반복하여 나타나는 현상을 나타내는 데 사용된다.

【회; 回】

한국어의 분류사 ‘회’와 중국어의 분류사 ‘回’는 비슷하게 쓰이고 있다.

(77) a. 제2회 정기

b. 총회공연을 여러 회 거듭할수록 그의 연기는 더욱 훌륭해졌다.

(78) a. 聽過兩回(두 번 들었다.)

b. 來過一回(한 번 왔다 갔다.)

한국어의 분류사 ‘회’는 (77)에서 보듯이 횟수를 나타내는 단위이다. 중국어 분류사 ‘回’는 (78a)와 (78b)에서 일이나 동작 따위의 횟수를 세는 단위로 쓰인다.

【도; 度】

한국어와 중국어의 분류사 ‘도(度)’는 별로 큰 차이가 없이 쓰이고 있다.

(79) a. 4도 인쇄

b. 90도

c. 섭씨 100도/ 화씨 25도

d. 북위 38도/ 동경 123도

(80) a. 再度聲名(재차 성명을 했다.)

b. 這個劇本曾經兩度公演.(이 극본은 일찍이 두 차례 공연되었다.)

c. 五度(5도)

한국어의 분류사 ‘도’는 (79a)에서 사물의 횡수를 세는 단위로 쓰이고 (79b), (79c), (79d)에서 각도·온도·경도·위도 등의 단위로 쓰인다. 중국어의 분류사 ‘度’는 (80a)와 (80b)에서 보듯이 동작의 횡수를 세는 단위로서 주로 문어체에서 사용하고, (80c)에서는 온도·각도·경도·위도 등의 단위로 쓰인다.

3.1.2 집합분류사

집합분류사는 두 개 이상의 개체로 이루어진 사물에 쓰인다. 본고에서는 집합분류사를 정량집합분류사(定量集合量詞)와 비정량집합분류사(不定量集合量詞)로 나누었다.

3.1.2.1 정량집합분류사

정량집합분류사는 일정한 수량을 가지고 있는데 사람이나 사물의 다수를 표시한다. 여기에서는 한국어와 중국어의 분류사 ‘쌍(雙)’을 예로 들어 설명하겠다.

【쌍; 雙】

한국어의 ‘쌍’은 짝을 이루고 있는 ‘무정물’과 ‘유정물’에 모두 사용할 수 있는데, 중국어의 분류사 ‘雙’은 생명이 없는 물체를 세는데 쓰인다.

- (81) a. 신혼부부/연인 한 쌍
- b. 젓가락/은가락지 한 쌍
- (82) a. 一雙眼睛(눈 한 쌍)
- b. 一雙袜子(양말 한 켤레)

한국어의 ‘쌍’은 (81a)와 (81b)에서 보듯이 짝을 이루고 있는 유정물이나 무정물에 대한 분류사로 쓰인다. 중국어의 분류사 ‘雙’은 (82a)에서 보듯이 짝을 이룬 사람의 부체(膚體)나 기관(器官)을 셀 때 사용하고, (82b)에서 짝을 이룬 물건을 세는 단위로 쓰인다.

3.1.2.2 비정량집합분류사

비정량집합분류사는 정하지 않는 양을 가지고 있는 사물이나 사람의 다수를 표시한다. 여기에서는 분류사 ‘반(班)’, ‘조(組)’, ‘속(束)’을 예로 들어 설명하겠다.

【반; 班】

한국어와 중국어의 분류사 ‘반(班)’은 모두 반급을 셀 때 사용한다. 그러나 중국어의 ‘班’은 운수와 작업교대 및 사람의 무리수를 나타낼 때도 사용할 수 있지만 한국어의 ‘반’은 오직 반급을 셀 때 사용된다.

- (83) a. 1학년 1반
b. 1학년을 3반으로 나누었다.
- (84) a. 二年三班(2학년 3반)
b. 下一班火車(다음 기차)
c. 工作三班倒(하루에 일 3번 교대로 하다.)
d. 一班小朋友(어린 친구 한 무리)

한국어의 분류사 ‘반’은 (83)처럼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조직된 작은 집체, 즉 반급을 셀 때 사용한다. 중국어의 분류사 ‘班’은 (84a)에서 반급을 셀 때 사용하고, (84b)에서 장기적으로 운행하는 교통운송수단의 수량을 셀 때 사용하며, (84c)에서 일을 교대할 때 쓰이고 (84d)에서 사람의 무리로 반·조를 이룬 단체에 사용한다.

【조; 組】

한국어나 중국어의 분류사 ‘組(조)’는 모두 두 개 이상의 물건이 한 세트로 만들어진 경우 그 수량 단위를 말할 때 사용한다. 그러나 한국어의 ‘조’는 한 군데 모인 사람을 셀 때는 명사로 사용된다.

- (85) a. 토론을 하기 위하여 한 반을 다섯 조로 나누었다.

- b. 응접세트 한 조
- (86) a. 一組男生(남자 한 무리)
- b. 一組電池(전지 한 묶음)
- c. 一組散文(산문 한 세트)

한국어의 분류사 ‘조’는 (85a)와 같이 일정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조직된 사람들의 집단을 셀 때 쓰이고, (85b)에서 두 개 이상의 물건이 갖추어 한 벌을 이룰 때 그 한 벌의 물건을 세는 단위로 쓰인다. 중국어의 분류사 ‘組’는 (86a)에서 보듯이 일정한 환경에 따라 한군데 모인 사람들을 셀 때 사용하고, (86b)와 (86c)에서는 조로 조립된 물건 및 조로 된 사물을 셀 때 사용한다.

【속; 束】

한국어와 중국어의 분류사 ‘束(속)’은 모두 한데 묶은 구체적인 사물의 수량 단위를 나타내고, 이런 사물들은 구체적일 수도 있고 추상적일 수도 있다. 하지만 한국어에서 이런 사물들이 꼭 구체적인 것이어야 한다.

- (87) a. 들깃 세 속
- b. 꽃 한 속
- (88) a. 一束靑草(풀 한 포기)
- b. 一束陽光(햇볕 한 가닥)

한국어의 분류사 ‘속’은 (87a)와 (87b)에서 한데 묶은 물건을 셀 때 사용한다. 중국어의 분류사 ‘束’은 (88a)와 같이 한데 묶은 가느다란 줄 혹은 조각인 형태의 물건을 셀 때 사용하고, (88b)에서는 한데 엮인 실이나 빛을 셀 때 사용한다.

3.1.3 도량형분류사

도량형분류사는 도량형의 단위를 표시하는 분류사로서, 사회 또는 정부가 규정한 장도(長度), 용기, 중량 등을 계산하는 단위이다.

3.1.3.1 길이에 사용하는 분류사

여기에서는 길이에 사용하는 한국어와 중국어의 분류사 ‘촌(寸)’, ‘리(里)’를 예로 들어 설명하겠다.

【촌;寸】

한국어와 중국어의 분류사 ‘촌(寸)’은 모두 길이의 단위를 나타낸다. 그러나 한국어의 ‘촌’은 주로 친척관계의 친밀정도를 표시한다.²⁹⁾

- (89) a. 두 자 세 치
b. 그는 나의 5촌 당숙이다.
- (90) a. 一寸布(한 치의 천)
b. 大雨雪二尺三寸.(폭설이 두자 삼치의 두께로 내렸다.)

한국어의 분류사 ‘촌(寸)’은 (89a)에서 길이의 단위로 쓰이는데, 이 경우는 ‘치’로 독음한다. 또 (89b)에서 친척관계의 멀고 가까움을 나타내어 명사를 분류하는 말로 쓰인다. 중국어의 분류사 ‘寸’은 (90a)에서 길이의 단위를 표시하고, (90b)에서 두께를 나타낸다.

【리;里】

한국어와 중국어의 분류사 ‘리(里)’는 모두 노정을 세는 단위이다.

- (91) 5리를 걸어서야 학교에 도착했다.
(92) 走了十里(십 리 걸었다.)

위의 (91)과 (92)에서 보듯이 한국어와 중국어의 분류사 ‘리(里)’는 모두 노정을

29) 박성훈(1998: 458)에 의하면 조선시대 문헌에 이미 ‘촌(寸)’이 가족관계의 멀고 가까움을 나타내는 분류사로 쓰인 용례가 있다고 한다. 예를 들면: 伯父·叔父曰三寸, 伯父·叔父之子四寸.

세는 단위를 표시하지만 측량표준이 서로 다르다. 현재 한국의 ‘일 리’가 0.393킬로미터이다. 중국에서 법정으로 길이를 세는 길이의 단위는 ‘公里’이고 비 법정 길이의 측량단위는 ‘里’이다.

3.1.3.2 용량에 사용하는 분류사

여기에서는 용량에 사용하는 한국어와 중국어의 분류사 ‘근(斤)’, ‘냥(兩)’을 예로 들어 설명하겠다.

【근; 斤】

한국어와 중국어의 분류사 ‘근’은 모두 무게를 세는 단위로 쓰인다.

- (93) a. 돼지고기 세 근
- b. 딸기 한 근
- (94) a. 一斤鷄蛋(계란 한 근)
- b. 體重100斤(체중 100근)

위의 (93)과 (94)를 보면 한국어나 중국어의 ‘근’은 모두 중량의 단위로 광범하게 사용된다.³⁰⁾한국어의 분류사 ‘근’은 오직 동물에 사용되지만, 중국어의 분류사 ‘斤’은 사람의 체중을 계산 할 때도 ‘근’을 쓴다.

【냥; 兩】

한국어와 중국어의 분류사 ‘냥’은 모두 중량단위로 쓰인다.

- (95) a. 금 석 냥
- b. 약재 다섯 냥
- (96) a. 二兩茶葉(차잎 두 냥)

30) 一斤=500그램 (한국에서는 600그램이다.)

b. 一兩白糖(설탕 한 냥)

위의 (95)와 (96)를 보듯이 두 나라 언어의 ‘냥(兩)’은 중량 단위이지만 비교를 통하여 측량 표준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³¹⁾.

3.1.3.3 넓이에 사용하는 분류사

여기에서는 넓이에 사용하는 한국어와 중국어의 분류사 ‘경(頃)’, ‘필(筆)’, ‘무(畝)’를 예로 들어 설명하겠다.

【경; 頃】

한국어와 중국어의 분류사 ‘경’은 모두 땅의 면적을 세는 단위로 쓰인다.

(97) 백걸의 땅이라면 얼마나 되는가?

(98) 一頃地(땅 한 헥타르)

위의 (97)과 (98)에서 보듯이 한국어와 중국어의 분류사 ‘경(頃)’은 모두 땅의 면적을 표시하는 단위지만 기준이 다르다.³²⁾

【필; 筆】

한국어의 분류사 ‘필’은 한자어지만 중국어의 분류사 ‘筆’과의 용법은 전혀 다르게 쓰인다.

(99) 논밭 두어 필

(100) a. 一筆錢(한 묶의 돈)

b. 寫得一筆好字(글씨를 잘 쓴다.)

31) 한국의 한 냥은 37.5그램에 해당되고 중국의 한 냥은 50그램에 해당된다.

32) 1畝=6,000㎡ 1頃=100畝 즉 만 여 평에 해당된다.

한국어의 분류사 ‘필’은 (99)처럼 논·밭·대지·임야 등의 구획된 전부를 하나로 세는 단위로 쓰인다. 중국어의 분류사 ‘筆’은 (100a)처럼 금액·금전과 관계되는데 쓰이고, (100b)처럼 書畫솜씨를 나타낼 때 쓰인다.

【무; 畝】

한국어와 중국어의 분류사 ‘무(畝)’도 모두 땅의 면적을 재는 단위로 쓰인다.

(101) 이 땅이 몇 묘나 되는지 한 번 걸어서 재봐라?

(102) 九畝地 (토지 1800평)

위의 (101)과 (102)에서 보듯이 한국어나 중국어의 분류사 ‘畝(묘)’는 모두 땅의 면적을 재는 단위로 쓰이지만 재는 기준이 다르다³³⁾. 한국어의 분류사 ‘畝’는 이 경우에 ‘묘’로 독음한다.

3.1.3.4 화폐에 사용하는 분류사

화폐에 사용하는 한국어 분류사는 ‘원’이지만 한자어가 아니기에 여기에서는 언급하지 않고 고유어 분류사로 비교할 때 다시 설명하겠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어 한자어 분류사와 대응하는 중국어 분류사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동일한 형태를 가지고 쓰이는 분류사와 같은 의미로 쓰이는 한국어의 한자어 분류사와 중국어의 분류사는 다음과 같다.

<표 11> 같은 의미로 쓰이는 분류사

분류사	한국어	중국어
名(명)	사람	左同
代(대)	조대(祖代)와 세대	左同
尾(미)	물고기	左同
艘(수)	큰 선박	左同

33) 한국의 한 묘는 666.7㎡에 해당하고 중국의 한 묘는 약 200㎡에 해당된다.

幅(폭)	폭이 있는 사물	左同
棟(동)	가옥이나 건물	左同
章(장)	가곡, 시문 문장 비교적 큰 작품의 단락	左同
組(조)	세트를 이루는 사람 및 사물	左同
匣(갑)	작은 상자	左同
瓶(병)	용기 속에 담긴 내용물	左同
回(회)	일, 동작 따위의 횟수	左同
度(도)	①온도, 각도, 경도, 위도 ②동작의 횟수	左同
歲(세)	나이	左同
級(급)	등급	左同

둘째, 동일한 형태를 가지고, 다른 의미로 쓰이는 한국어의 한자어 분류사와 중국어의 분류사는 다음과 같다.

<표 12> 다른 의미로 쓰이는 분류사

분류사	한국어	중국어
位(위)	①불상의 수효 ②죽은 사람의 神主 또는 位牌에 모신 神	사람 또는 초자연적 존재에 대한 존경의 의미
枚(매)	얇고 면이 있는 사물	작고 둥글납작한 사물
筆(필)	논, 밭, 임야, 대지 등의 구획된 면적 단위	①비용과 관계있는 것 ②그림이나 글씨를 쓰는 동작의 횟수 ③서화의 솜씨
部(부)	신문이나 책	①책의 수량 ②영화, 전화기
點(점)	①성적 ②시간 ③옷, 그릇 ④물 방울 ⑤살코기 등 조각 ⑥바둑판의 눈이나 바둑 돌	①조금, 약간의 뜻 ②사항 ③시간
盞(잔)	잔에 담긴 술이나 음료	燈
番(번)	단일성 동작의 횟수	①추상적 사물 ②동전 ③집체성 동작
통(通)	①전보, 편지 ②전화를 거는 동작의 횟수	①악기 연주하는 동작 ②추상적인 언어활동

셋째, 동일한 형태를 가지고, 한국어에서 중국어보다 더 넓은 의미로 쓰이는 한국어의 한자어 분류사와 중국어의 분류사는 다음과 같다.

<표 13> 한국어에서 중국어보다 더 넓은 의미로 쓰이는 분류사

분류사	한국어	중국어
匹(필)	①소, 말 등 ②옷감	말, 낙타 등
首(수)	①시, 노래 ②일부분 가축, 집짐승	시, 노래
株(주)	①나무 ②건축물	나무
臺(대)	①무대 공연물, 거전제품 ②운송수단	무대 공연물, 가전제품
卷(권)	책을 셀 때 사용	①책 ②영화 필름
篇(편)	①영화나 연극의 편수 ②종이, 논문, 작품	종이, 논문, 작품 등
雙(쌍)	생명이 있는 없는 짝을 이룬 물체	생명이 없는 짝을 이룬 물체
寸(촌)	①친척간의 친밀정도 ②길이의 단위	길이의 단위
次(차)	①동작의 횟수 ②수삼의 무게	동작의 횟수

넷째, 동일한 형태를 가지고, 중국어에서 한국어보다 더 넓은 의미로 쓰이는 한국어의 한자어 분류사와 중국어의 분류사는 다음과 같다.

<표 14> 중국어에서 한국어보다 더 넓은 의미로 쓰이는 분류사

분류사	한국어	중국어
具(구)	시체, 유해 및 관	①시체 ②유골 ③일반 기물
隻(척)	배	①둘이서 짝을 이룬 사물 중의 하나 ②동물 ③배 ④상자
頭(두)	소나 말	①소 ②마늘 ③일 등
輛(량)	차량	①차량 ②비행기
張(장)	비누, 담요, 티셔츠, 유리 등	의자, 침대, 탁자, 종이, 얼굴, 활, 입 등
座(좌)	한옥, 불상 등과 같은 큰 사물	①산 ②건축물 ③교량 ④받침대가 있는 사물
件(건)	사고 및 일이 성사된 횟수	의복, 예술품, 장신구, 가구, 짐, 서신
節(절)	글이나 노래 등을 내용에 따라 나눈 단락	①기차의 객차 문장의 단락 ②여러 가지 사물의 나누어진 부분
門(문)	대포	①가족, 혼사, 행업과 관련된 것 ②대포 ③과목, 학문, 기술 등

場(장)	연극에서 막을 나눈 단락	①문예, 체육, 오락 활동 ②시간 및 과정이 필요한 일 ③연극에서 막을 나눈 단락
班(반)	반급을 세는 단위	①반급 ②운수 ③작업교대 ④사람의 무리수
束(속)	한데 묶은 구체적인 물품	한데 묶은 구체적인 혹은 추상적인 물품
層(층)	층, 겹, 별 등 중첩되거나 쌓여있는 것	①층, 겹, 별 등 중첩되거나 쌓여있는 것 ②사항이나 도리 ③겹과 같이 물체의 표면의 막이나 얼음 등
段(단)	바둑등급이나 문장	①바둑등급이나 문장 ②일정한 시간 ③토막단위

3.2 한국어의 고유어 분류사와 중국어의 분류사

3.2절에서 한국어의 고유어 분류사와 대응되는 중국어의 분류사를 찾아서 그 의미와 용법을 비교하여 설명하겠다.

3.2.1 개체분류사

개체분류사에 사용되는 분류사를 의미자질에 따라 그 유형을 나누고 각각의 유형에 편입된 고유어 분류사와 대응되는 중국어 분류사의 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다.

3.2.1.1 사람에 사용하는 분류사

【분: 位】

한국어와 중국어의 ‘분’과 ‘位’는 모두 사람을 존경하는 의미로 쓰이는 분류사이

다. 하지만 중국어의 ‘位’는 추상적인 것에도 사용할 수 있다.

(103) a. 어떤 분이 선생님을 찾아오셨습니다.

b. 손님 다섯 분

(104) a. 一位哲學家(철학자 한 분)

b. 一位天使(천사 한 분)

한국어의 분류사 ‘분’은 (103a)에서 사람을 높여서 이르는 말로 쓰이고, (103b)에서 높이는 사람을 세는 단위로 쓰인다. 중국어의 분류사 ‘位’는 주로 사람을 높여서 지칭하는 분류사로 사용되는데, (104a)에서 일정한 신분을 가진 사람에게만 쓸 수 있으며, (104b)에서 초자연적인 존재의 수량을 표시할 때 에는 ‘천사’와 같이 높일 대상이 되는 경우에도 분류사 ‘位’를 사용한다.

3.2.1.2 동물에 사용하는 분류사

【마리: 只, 匹, 頭, 條】

한국어 분류사 ‘마리’는 물고기, 짐승, 곤충 등에 대한 가장 보편적으로 쓰이는 분류사로서 거의 모든 부류의 동물을 수량화할 때 사용되고, 중국어에는 ‘只’, ‘匹’, ‘頭’, ‘條’가 많이 쓰인다. 중국어의 분류사 ‘只’, ‘匹’, ‘頭’, ‘條’는 한국어에서 모두 ‘마리’로 번역할 수 있다. 그리고 중국어의 ‘匹’은 말을 셀 때에만 사용한다.

(105) a. 돼지/말 한 마리

b. 붕어/오징어 한 마리

(106) a. 一只鷄(닭 한 마리)

b. 一匹馬(말 한 필)

c. 一頭牛(소 한 두)

d. 一條魚(물고기 한 마리)

한국어의 분류사 ‘마리’는 동물의 가장 일반적인 수량 단위이다. ‘두’와 ‘수’는 모두 동물의 수량을 세는 데 쓰이기 때문에 이들에서 차용한 ‘마리’도 동물의 수량을

세는 데에 쓰인다. 뿐만 아니라 ‘匹’과 ‘尾’ 같은 동물이나 생선의 수량단위에도 사용할 수 있다. 그러므로 한국어의 ‘마리’는 (105)에서 보듯이 짐승 류, 가축 류 등에 모두 사용할 수 있다. 중국어의 분류사 ‘只’, ‘匹’, ‘頭’, ‘條’는 동물, 생선, 곤충을 나타내는 분류사이며, ‘只’는 (106a)에서 조류 및 짐승류와 곤충을 헤아리는데 사용하고, ‘匹’은 (106b)에서 말에 사용하고, ‘頭’는 (106c)에서 소, 양 등 가축에 사용하고, ‘條’는 (106d)에서 개, 소 등 가축과 좀 길게 생긴 동물, 생선에 사용한다.

3.2.1.3 식물에 사용하는 분류사

【그루, 포기: 棵, 株】

한국어의 분류사 ‘그루’와 ‘포기’의 의미와 용법은 중국어의 분류사 ‘棵’와 같으며, 나무를 셀 때에는 ‘棵’가 ‘그루’와 대응되고, 배추 화초를 셀 때에 ‘포기’와 대응된다.

- (107) a. 정원에 은행나무 두 그루를 심었다.
 b. 이곳은 일조량이 많아서 논농사도 두 그루 심는다.
 c. 풀/배추 세 포기
- (108) a. 一棵樹(나무 한 그루)
 b. 一株大柳樹(버드나무 한 그루)

한국어의 분류사 ‘그루’는 (107a)에서 식물, 특히 나무를 세는 단위로 쓰이고, (107b)에서 한해에 같은 땅에 농사짓는 횟수를 세는 단위로 쓰인다. ‘포기’는 (107c)에서 뿌리를 단위로 초목을 셀 때 사용한다. ‘그루’는 일반적으로 큰 식물에 사용되고, ‘포기’는 작은 식물을 셀 때 사용한다. 중국어의 분류사 ‘棵’는 식물을 헤아릴 때 쓰는 ‘나무 한 그루’라는 뜻으로, (108a)에서 식물을 셀 때 쓰이는 전문 분류사로 기타 물체에 쓰이지 않는다. ‘株’는 (108b)에서 화초수목(뿌리가 있는)에 쓰인다. ‘棵’는 구어에 쓰이고, ‘株’는 문어에 많이 쓰인다.

【송이, 떨기: 朵】

한국어의 ‘송이’와 중국어의 ‘朵’는 모두 꽃을 헤아리는 분류사이다. 한국어의 분

류사 ‘송이’는 과일을 헤아릴 수 있지만 중국어의 ‘朶’는 과일을 세는데 쓰이지 못하고, 중국어의 분류사 ‘朶’는 꽃송이처럼 생긴 것에 쓰이며, 구름과 같은 것에 사용되지만, 한국어의 ‘송이’는 꽃이나 눈에 사용된다.

- (109) a. 장미/포도 열 송이
- b. 두어 송이 눈이 떨어졌다.
- (110) a. 一朶花(꽃 한 송이)
- b. 一朶白雲(한 점의 흰 구름)

한국어의 분류사 ‘송이’는 (109a)에서 꽃, 열매 등과 같이 ‘봉우리’의 모양을 가진 식물의 수량을 셀 때 쓰이고, (109b)에서 ‘눈’에도 적용될 수 있다. 중국어의 분류사 ‘朶’는 (110a)에서 꽃에 쓰이거나, (110b)에서 꽃송이처럼 생긴 것을 세는 단위로 쓰인다.

3.2.1.4 기계 · 도구에 사용하는 분류사

【자루: 枝, 把】

한국어의 분류사 ‘자루’와 중국어의 분류사 ‘枝, 把’는 모두 가늘게 생기고 자루가 달인 물건에 사용된다. 하지만 중국어의 ‘把’는 재간, 기능 등의 의미에도 쓰인다.

- (111) a. 품 한 자루
- b. 연필 두 자루
- c. 총/호미 한 자루
- (112) a. 一枝筆(필 한 자루)
- b. 十枝步槍(소총 10자루)
- c. 一把刀(칼 한 자루)
- d. 一把好手藝(훌륭한 손재주)

한국어의 ‘자루’는 (111a)에서 일을 하는 데 드는 품이나 노력 공수(工數)를 세는 단위로 쓰이고, (111b)와 (111c)에서는 가늘게 생긴 필기도구나 연장, 무기 따위를

세는 단위로 쓰인다. 중국어의 분류사 ‘枝’ (112a)와 (112b)에서 총이나 필과 같은 가늘고 긴 물건을 세는 단위를 나타낸다. ‘把’는 (112c)에서 자루가 달린 기구에 쓰이고, (112d)에서 능력을 나타낸다.

3.2.1.5 사물의 모양에 사용하는 분류사

【알: 顆】

한국어의 분류사 ‘알’과 중국어의 분류사 ‘顆’는 모두 작고 둥근 물건을 헤아리지만 중국어의 ‘顆’는 한국어의 ‘알’보다 그 사용범위가 더 넓다. 하지만 중국어의 ‘顆’는 계란을 셀 때 쓰이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것은 중국의 일상생활에서 ‘알’류는 ‘斤’으로 계산하고 개수를 나타낼 때에 ‘개’를 사용한다.

(113) a. 계란 한 알

b. 몇 알의 모래

(114) a. 一顆沙子(모래 한 알)

b. 一顆心臟(심장 한 개)

c. 一顆星(별 하나)

위의 (113)에서 한국어의 분류사 ‘알’은 작고 둥근 물건의 수량 단위이다. 중국어의 분류사 ‘顆’는 (114a)에서 둥글고 작은 알갱이 모양과 같은 것에 쓰이고 있고, (114b)에서 사람이나 동물의 어떤 기관을 셀 때 쓰이고, (114c)에서 ‘별, 마음’을 셀 때도 쓰인다.

【덩어리, 조각, 토막: 塊, 段】

한국어의 분류사 ‘덩어리, 조각, 토막’과 중국어의 분류사 ‘塊, 段’은 모두 조각을 나타낸다. ‘덩어리’는 둥근 또는 각이 난 물건을 나타내지만, ‘塊’는 각이 난 물건만을 헤아릴 때 사용한다. 이야기나 글의 문단을 셀 때는 한국어의 ‘토막’과 중국어의 ‘段’이 대응된다.

- (115) a. 수박/고기 한 덩어리
 b. 얼음/과일 한 조각
 c. 갈치/통나무 세 토막
 d. 이야기 한 토막
- (116) a. 一塊木板(나무 판 한 조각)
 b. 一塊面包(빵 한 덩어리)
 c. 人民幣十塊錢(인민폐 10원)
 d. 一段木頭(나무 한 토막)
 e. 一段故事(이야기 한 토막)

한국어의 분류사 ‘덩어리’는 (115a)에서 큰 모양으로 된 것을 세고, ‘조각’은 (115b)에서 한 물체에서 분리해 낸 작은 부분을 세고, ‘토막’은 (115c)와 (115d)에서 좀 크게 잘라 낸 물체의 덩어리나 긴데서 떼어 낸 말, 글, 생각 따위의 부분을 세는 단위이다. 중국어의 분류사 ‘塊’는 (116a)와 (116b)에서 덩어리 또는 조각 모양의 물건을 헤아리는 데 쓰이고, (116c)에서는 중국의 화폐 단위(元)로 주로 구어체에서 많이 쓰인다. 분류사 ‘段’은 (116d)에서 가늘고 긴 물건이 나뉜 토막을 세는 데 쓰이고, (116e)에서 음악, 말, 문장 등의 일부분을 셀 때 쓰인다.

3.2.1.6 건축물에 사용하는 분류사

【채: 所】

한국어의 분류사 ‘채’와 중국어의 분류사 ‘所’는 모두 건축물에 쓰이지만 ‘채’는 보다 작은 가옥에 쓰이고, 중국의 ‘所’는 비교적 큰 건축물에 쓰인다. 그리고 한국어의 ‘채’는 이불, 가구 등에 쓰이고, 인삼의 무게도 셀 수 있지만, 중국어의 ‘所’는 오직 건물을 헤아리는 데만 쓰인다.

- (117) a. 기와집 한 채
 b. 가마 몇 채
 c. 이불 한 채
 d. 인삼 한 채

- (118) a. 一所房子(집 한 채)
 b. 兩所大學(대학 두 채)

한국어의 분류사 ‘채’는 (117a)에서 집의 수량을 나타내는 단위이다. (117b)와 (117c)에서 가구, 기구, 이불 등을 센다. (117d)에서 가공하지 아니한 인삼을 묶어 세는 단위로 쓰인다(한 채는 인삼 100근이다). 중국어 분류사 ‘所’는 (118)에서 집이나 학교, 병원 따위의 건축물에 많이 쓰인다.

【칸: 間】

한국어의 분류사 ‘칸’과 중국어의 분류사 ‘間’은 모두 건물이나 작은 처소를 세는 단위로 쓰인다.

- (119) 방/부엌 한 칸
 (120) 一間屋/庫房(집/창고 한 칸)

위의 (119)에서 한국어의 분류사 ‘칸’은 수량을 나타내는 말 뒤에 쓰여 집의 칸살의 수효를 세는 단위로 쓰인다. 중국어의 분류사 ‘間’은 (120)에서 건물이나 집을 세는 최소 단위이다. 한국어의 분류사 ‘칸’과 중국어의 분류사 ‘間’은 모두 방을 세는 단위로 쓰이고, 다만 ‘채(所)’와 달리 ‘칸(間)’은 비교적 작은 처소를 가리킨다.

3.2.1.7 의류에 사용하는 분류사

【벌: 件】

한국어의 분류사 ‘벌’과 중국어의 분류사 ‘件’은 모두 옷을 세는 데 사용한다. 그러나 중국어의 분류사 ‘件’은 주로 상의에 쓰이고, 한국어의 분류사 ‘벌’처럼 이불, 그릇 등에 사용되지 못한다.

- (121) a. 바지저고리 한 벌
 b. 반상기 세 벌

- c. 공구 몇 벌
 - d. 한편 구석에는 개어 놓은 이부자리가 서너 벌쯤 쌓여 있다.
- (122) a. 一件襯衫(셔츠 한 벌)
 b. 一件衣服(옷 한 벌)
 c. 一件雨衣(비옷 한 벌)

한국어의 분류사 ‘벌’은 (121)에서 옷이나 그릇 따위가 두 개 또는 여러 개 모여 갖추는 덩어리를 세는 단위로 쓰인다. 중국어의 분류사 ‘件’은 (122)에서 의류(衣類)를 세는 데 쓰이지만 주로 상의(上衣)에 쓰인다.

3.2.1.8 문자·문화에 사용하는 분류사

【쪽: 頁】

분류사 ‘쪽’과 ‘頁’은 모두 종이의 한 면을 셀 때 쓰이는데, ‘쪽’은 페이지를 세는 역할만 하고, ‘頁’은 과생의미가 있어 수식의 역할을 한다. 그리고 ‘쪽’은 마늘에도 사용할 수 있지만 ‘頁’은 그렇게 사용하지 못한다.

- (123) a. 몇 쪽이나 됩니까?
 b. 마늘 몇 쪽
- (124) a. 一頁紙(종이 한 쪽)
 b. 一百多頁(백여 쪽)

한국어의 분류사 ‘쪽’은 (123a)에서 책이나 장부의 면이나 식물의 종자, 화관, 과일 등에 쓰인다. (123b)에서 마늘을 세는 단위로도 쓰인다. 중국어의 분류사 ‘頁’은 (124)에서 서적, 신문이나 잡지의 종잇장을 세는데 쓰인다.

3.2.1.9 놀이·사건에 사용하는 분류사

【가지: 樁】

한국어의 ‘가지’는 사물의 특징에 따라 종류별로 나누는 단위로 쓰이지만 중국어의 분류사 ‘樁’은 추상적인 일이나 사건에 쓰인다.

- (125) a. 두 가지 방법
- b. 그 예를 몇 가지 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
- (126) a. 一樁婚事(혼사 한 건)
- b. 一樁賣買(장사 한 건)

한국어의 분류사 ‘가지’는 (125)에서 사물을 그 성질이나 특징에 따라 종류별로 낱말이 헤아리는 단위이다. 중국어의 분류사 ‘樁’은 (126)에서 사건이나 일을 세는 데 쓰인다.

3.2.1.10 용기·기구에 사용하는 분류사

【포대: 袋】

한국어의 분류사 ‘포대’와 중국어의 분류사 ‘袋’는 모두 쌀이나 다른 물건을 포대에 담아 분량을 세는 단위로 쓰인다.

- (127) 쌀 한 포대
- (128) 一袋玉米(옥수수 한 포대)

위의 (127)과 (128)에서 보듯이 한국어의 분류사 ‘포대’와 중국어의 분류사 ‘袋’는 모두 수량을 나타내는 말 뒤에 쓰여 물건을 베자루에 담아 그 분량을 세는 단위로 쓰인다.

3.2.1.11 나이에 사용하는 분류사

【살: 歲】

한국어의 분류사 ‘살’과 중국어의 분류사 ‘歲’는 모두 나이를 세는 단위로 쓰인다.

(129) 두 살 먹은 애기

(130) 我今年8歲.(나 올해에 여덟 살이에요.)

위의 (129)와 (130)을 보듯이 한국어의 분류사 ‘살’과 중국어의 ‘歲’는 모두 나이를 세는 단위이다. 다만 ‘살’은 10세 이하의 사람에게만 사용하고 그 위는 ‘세’를 사용한다. 이때의 ‘세’와 ‘歲’는 의미가 비슷하게 사용한다.

3.2.1.12 횃수 · 차례에 사용하는 분류사

【끼: 頓】

한국어의 분류사 ‘끼’와 중국어의 분류사 ‘頓’는 모두 식사를 하는 횃수를 세는 단위로 쓰인다.

(131) 하루에 세 끼를 꼬박꼬박 챙겨 먹는다.

(132) 一天吃三頓飯.(하루에 세 끼 식사를 한다.)

위의 (131)과 (132)를 보듯이 한국어 분류사 ‘끼’와 중국어의 분류사 ‘頓’은 모두 식사 횃수의 단위로 쓰인다.

【차례, 바탕: 陣, 場】

분류사 ‘차례, 바탕’과 ‘陣, 場’은 모두 일정 시간동안 연속적으로 행해지는 행위나 동작에 사용되는 분류사이다. ‘陣’은 ‘차례’에 해당되고, ‘바탕’은 ‘場’에 해당된다. ‘바탕’과 ‘차례’는 모두 연속적인 시간을 단위로 행해진 동작에 사용되는 분류사로서 서로 바꾸어 사용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둘 사이의 의미상의 차이점은 ‘바탕’은 ‘동작이 이루어지는 (실제적 또는 가상적) 공간’에 중점을 둔 표현이다. 그리고 ‘차례’로 나타내는 동작은 ‘동작이 행하여진 연속적인 시간’에 중점을 둔 표현으로 갑자기 발생하거나 지속된 시간이 비교적 짧은 경우에 사용되며, ‘자연현상’, ‘소리’, ‘심리’ 등의 대상을 분류할 때 사용된다.³⁴⁾

- (133) a. 소나기가 몇 차례 쏟아졌다.
 b. 씨름을 몇 바탕 하다.
- (134) a. 看了一場電影.(1회의 영화를 보았다.)
 b. 下了一陣雨.(한 차례 비가 내렸다.)

한국어의 분류사 ‘차례’는 (133a)에서 일이 일어나는 횟수를 나타내고, ‘바탕’은 (133b)에서 어떤 일을 한 차례 끝내는 동안을 세는 단위로 쓰인다. 다만 ‘차례’는 단일성 동작의 횟수를 내고, ‘바탕’은 집체성동작을 나타낸다. 중국어의 분류사 ‘場’과 ‘陣’은 (134)에서 모두 동작의 횟수를 나타낸다.

3.2.2 집합분류사

3.2.2.1 정량 집합분류사

【컬레: 副】

한국어의 ‘컬레’와 중국어의 ‘副’는 모두 신, 양말 등 짝이 되는 물건을 세는 단위로 쓰인다.

- (135) a. 구두/양말 한 컬레
 b. 우리는 두 컬레의 군화를 반짝반짝 광채가 나도록 닦아 놓았다.
- (136) a. 一副手套(장갑 한 컬레)
 b. 一副眼鏡/耳環(안경/귀고리 한 부)
 c. 一副笑臉(웃는 얼굴)

한국어의 분류사 ‘컬레’는 (135)에서 신, 양말, 버선, 방망이 따위의 짝이 되는 두 개를 한 벌로 세는 단위이다. 중국어의 분류사 ‘副’는 (136a)에서 한 벌 또는 한 쌍

34) 盧東善(1987: 152)에 의하면 ‘笑了一場’과 ‘笑了一陣’은 모두 ‘웃음이 한 차례 벌어진 상황’을 표현하고 있지만, 전자는 ‘공간적 場’에 초점을 둔 표현이며, 후자는 ‘시간적 線’에 중점을 둔 표현이라고 밝히고 있다. 한편, 胡附(1988: 46)에서는 분류사 ‘陣’은 상황이 위급하고 일정 시간동안 연속된 동작의 단위에 사용한다고 밝히고, ‘場’과 의미상으로 큰 차이는 없으나 동작이 지속된 시간이 비교적 긴 경우에 ‘場’을 사용한다고 하였다.

으로 되어 있는 물건에 쓰이고, (136b)에서 얼굴 표정을 나타낼 때 쓰이고, (136c)에서 ‘귀고리’나 ‘안경’ 등 쌍을 이룬 사물에 대한 분류사로도 사용된다.³⁵⁾

3.2.2.2 비정량 집합분류사

【무더기: 堆】

한국어의 분류사 ‘무더기’는 중국어의 분류사 ‘堆’와 대응되고, 모두 한데 쌓인 물체를 셀 때 사용한다. 그러나 중국어의 ‘堆’는 한데 모인 사람도 가리킬 수 있고, 흔히 형용사 ‘大, 小’와 결합하여 사용한다.

(137) 감자/사과/풀 한 무더기

(138) a. 一大堆人(사람 한 무리)

b. 一小堆草(풀 한 무더기)

c. 一大堆不滿(불만 한 무더기)

한국어의 분류사 ‘무더기’는 (137)에서 한 데 쌓인 물건을 셀 때 사용한다. ‘무더기’는 명사로도 쓰인다. 중국어의 분류사 ‘堆’는 (138a)와 (138b)에서 모이는 사람들이나 한데 쌓이는 물체를 세며, ‘堆’는 (138c)에서 불만, 원한 등 부정적 의미도 나타낸다.

【묶음, 다발: 捆, 沓】

한국어의 분류사 ‘무더기, 다발’과 중국어의 분류사 ‘捆, 沓’은 모두 한 묶음으로 된 가는 줄과 편 모양의 물건을 셀 때 사용한다.

(139) a. 종이/나무/뽕짚 한 묶음

b. 장미꽃/장작/돈 한 다발

(140) a. 一大捆草(풀 한 묶음)

35) 王希杰(1990: 190)에 의하면 ‘雙(쌍)’은 좌우대칭의 肢體·器官 또는 짝을 이루어서 사용하는 사물(手, 脚)에 사용하고, ‘副(컬레)’는 주로 세트나 쌍을 이루는 사물(眼鏡, 對聯)에 사용된다고 한다.

b. 一大查玫瑰(장미꽃 한 다발)

위의 (139a)에서 한국어의 분류사 ‘묶음’은 수사 뒤에 쓰여 묶어 놓은 덩이를 세는 단위이고, ‘다발’은 (139b)에서 꽃, 풀, 돈 등의 묶음 셀 때 사용한다. 중국어의 분류사 ‘捆’은 한 묶음으로 된 가는 줄과 편 모양으로 물건을 셀 때 사용하고, 앞에 형용사 ‘大, 小’가 붙을 수 있다. ‘沓’은 겹쳐 놓은 종이나 기타 얇은 물건을 셀 때 사용한다. 한국어의 분류사 ‘무더기, 다발’과 중국어의 분류사 ‘捆, 沓’은 (140)에서 모두 한 묶음으로 된 가는 줄과 편 모양의 물건을 셀 때 사용한다. 다만 중국어의 ‘捆, 沓’은 앞에 형용사 ‘大, 小’가 올 수 있다.

【보따리: 包】

한국어의 분류사 ‘보따리’와 중국어의 분류사 ‘包’는 모두 꾸러미로 된 물건에 쓰이지만 그 구별은 한국어는 추상적 명사와 어울려 쓰는 대신 중국어는 오직 구체적인 명사와만 어울린다.

(141) a. 떡/빵/ 한 보따리

b. 추억 한 보따리

(142) 一包香煙(담배 한 보따리)

한국어의 분류사 ‘보따리’는 (141a)에서 보자기에 싼 물건을 셀 때 사용하고, (141b)에서 마음속의 생각을 비유하기도 한다. 중국어의 분류사 ‘包’는 (142)에서 꾸러미로 된 물건을 셀 때 사용한다.

【꼬치, 꿩미: 串】

한국어의 분류사 ‘꼬치, 꿩미’와 중국어의 분류사 ‘串’은 모두 한 줄로 꿰 물건을 헤아리는 것이다.

(143) a. 마늘/어묵 한 꼬치

b. 열쇠/구슬 두 꿩미

- (144) a. 一串珍珠(진주 한 줄)
- b. 一串笑聲(한 바탕 웃다.)
- c. 一串問題(여러 가지 문제)

한국어의 분류사 ‘꼬치’는 (143a)에서 끝이 뽀족하고 꼬챙이에 꿰 물건을 가리키고, ‘꿰미’는 (143b)에서 노끈 같은 것으로 꿰어 놓은 것을 하나로 치는 단위이다. 중국어의 분류사 ‘串’은 (144a)에서 한주로 꿰 꿰미의 물건을 셀 때 사용하고, (144b)에서 연속성이 있는 소리나 동작을 나타내고, (144c)에서 연속성이 있는 추상적인 사물을 표현 할 때 사용한다.

3.2.3 도량형분류사

3.2.3.1 길이에 사용하는 분류사

【뺨: 拵】

한국어의 분류사 ‘뺨’과 중국어의 분류사 ‘拵’는 모두 길이에 사용하는 분류사이다.

- (145) 벼이삭이 한 뺨 자랐다.
- (146) 他用手拵桌面.(그가 손 뺨으로 탁자를 쟀다.)

위의 (145)에서 한국어의 분류사 ‘뺨’은 엄지손가락과 중지를 잔뜩 벌려 센 거리를 한 단위로 이르는 말이다. (146)에서 중국어의 분류사 ‘拵’는 손뺨으로 길이를 재는 단위이다. ‘뺨’은 엄지와 중지사이의 거리를 말하고, ‘拵’는 엄지와 중지 또는 엄지와 소지사이의 거리를 말한다.

3.2.3.2 용량에 사용하는 분류사

【섬, 말, 되: 石, 斗, 昇】

한국어의 분류사 ‘섬’, ‘말’, ‘되’와 중국어의 분류사 ‘石’, ‘斗’, ‘昇’은 모두 용량에 사용하는 분류사이다.

- (147) a. 벼 한 섬을 지게에 지다.
 b. 쌀 두 말
 c. 쌀/막걸리 한 되
- (148) a. 一石是十斗(한 섬을 열 말이다.)
 b. 一斗大米(쌀 한 말)
 c. 一昇啤酒(맥주 한 되)

위의 (147)에서 한국어의 분류사 ‘섬, 말, 되’는 모두 부피의 단위. 곡식, 액체, 가루 따위의 부피를 잴 때 쓴다. 한 ‘섬’은 한 말의 열 배로 약 180리터에 해당한다. 한 ‘말’은 한 되의 열 배로 약 18리터에 해당한다. 한 되를 한 말의 10분의 1, 한 홉의 열 배로 약 1.8리터에 해당한다. (148)에서 중국어의 분류사 ‘石, 斗, 昇’도 모두 곡물의 용량의 단위를 나타낼 때 사용한다. 중국어의 ‘石’에 대응되는 한국어의 분류사는 ‘섬’이고, ‘斗’에 대응하는 건 ‘말’이고, ‘昇’에 대응하는 건 ‘되’이다.

3.2.3.3 넓이에 사용하는 분류사

【섬지기, 마지기, 되지기】

한국어의 분류사 ‘마지기, 되지기, 섬지기’는 모두 논밭의 면적을 세는 단위이다. 한 섬지기는 씨앗을 심을 만한 넓이로 한 마지기의 열 배이며 논은 약 2,000평, 밭은 약 1,000평이다. 논은 한 마지기가 약 150-300평으로 하고, 밭은 한 마지기가 약 100평으로 한다. 한 되지기는 한 마지기의 10분의 일이다. 중국에는 이에 대응하는 분류사가 없다.

3.2.3.4 화폐에 사용하는 분류사

【원: 元, 塊】

한국어의 분류사 ‘원’과 중국어의 분류사 ‘元’, ‘塊’는 모두 화폐에 사용하는 분류사로 쓰인다.

(149) 용돈 1000원만 주세요.

(150) a. 零花錢100元(용돈 100원)

b. 零花錢100塊(용돈 100원)

위의 (149)에서 ‘원’은 한국의 화폐 단위이다. 1원은 1전의 100배이다. 1962년 6월 10일부터 시행되었다. 기호는 ‘₩’이다. (150)에서 중국어의 화폐단위는 ‘元’이다³⁶⁾. 하지만 일반적으로 구어에서는 ‘塊’를 사용한다.

이상에서 한국어의 고유어 분류사와 그에 대응하는 중국어의 분류사를 비교·설명해 보았는데, 한국어의 고유어 분류사와 중국어의 분류사는 번역이 가능하다. 다만 번역과정에서 분류사의 특성에 주의해야 한다.

36) 만원=50元 (현재 환율에 따라 한국 돈 만 원이 중국 돈 50元に 상당하다.)

4. 결론

한국어는 한자를 차용하여 언어생활을 하였으므로 한자어 분류사가 많이 쓰이고 있다. 따라서 한국어를 배우는 중국인 학습자나 중국어를 배우는 한국인 학습자에게 유리한 점도 있지만 분류사의 쓰임이 두 언어에서 다르므로 의미상의 오류가 나타난다. 그러므로 본 논문은 한국어와 중국어 분류사의 정의와 유형을 전체로 분류사의 구조 특징, 의미와 용법을 비교하였다.

2장에서는 한국어와 중국어 분류사의 구조적 특징을 살펴보았다. 먼저 한국과 중국의 여러 학자들의 분류사 정의와 유형에 대한 견해를 살펴보았는데, 한국어의 분류사는 아직까지도 의존명사, 불완전명사, 수량단위 불완전명사라 불리고 있다. 이에 반해 중국어의 분류사는 張志公(1959: 20)이 처음으로 ‘量詞’라고 명칭을 정했다. 한국어 분류사는 아직도 통일된 정의가 없고 독립된 품사로 되지 않았지만 중국어 분류사는 이미 ‘量詞’라는 명칭이 확정되고, 독립된 품사로 인정되었다.

그리고 Sang-ryong Oh(1994)와 呂叔湘(1982)의 분류 방식을 기준으로 한국어 분류사의 의미범주 유형을 크게 개체(個體), 집합(集合), 도량형(度量衡) 세 범주로 나누었다. 개체 분류사는 사람, 동물, 식물, 기계·도구, 사물의 모양, 건축물, 의류, 문자·문화, 놀이·사건, 용기·기구, 나이·점수·등급, 횟수·차례 등 12개 하위범주로, 집합 분류사는 정량(定量)과 비정량(比定量) 2개 하위범주로, 도량형 분류사는 길이, 용량, 무게, 화폐 등에 사용되는 분류사로 나누었다.

다음, 구성 방식에서는 결합구조와 중첩구조를 주로 살펴보았는데, 그 기능은 비슷하게 쓰이지만 한국어의 분류사는 단독으로 사용하지 못한다.(상세한 것은 <표 9>와 <표 10>을 참조하면 된다.) 그리고 문법 기능에서 두 언어의 분류사는 모두 주어, 술어, 목적어, 보충어, 관형어, 부사어로 쓰이지만 한국어의 분류사는 중국어의 분류사와는 달리 독립어로도 사용된다.

3장에서는 한국어를 배우는 중국인 학습자나 중국어를 배우는 한국인 학습자들이 분류사와 명사의 연관성을 보다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게 한국어의 분류사를 한자어와 고유어로 나누고 그와 대응되는 중국어 분류사를 찾아서 의미를 살펴보았다. 아울러 한국어의 한자어 분류사와 동일한 형태를 가지는 중국어 분류사를 함께 제시하여 한국어와 중국어 분류사의 의미상의 대응양상을 비교·분석하였다. 그 결과 한국어의 한자어 분류사와 중국어의 분류사가 같은 의미로 쓰이는 분류사, 한

국어에서 중국어보다 더 넓은 의미로 쓰이는 분류사, 중국어에서 한국어보다 더 넓은 의미로 쓰이는 분류사, 다른 의미로 쓰이는 분류사로 나누었다. (상세한 것은 각각 <표 12>, <표 13>, <표 14>, <표 15>를 참조하면 된다.)

첫째, 같은 의미로 쓰이는 분류사는 다음과 같다.

명(名), 대(代), 미(尾), 수(艘), 폭(幅), 동(棟), 장(章), 조(組), 갑(匣), 병(瓶), 회(回), 도(度), 세(歲), 급(級)

둘째, 다른 의미로 쓰이는 분류사는 다음과 같다.

위(位), 매(枚), 필(筆), 부(部), 점(點), 잔(盞), 번(番), 통(通)

셋째, 한국어에서 중국어보다 더 넓은 의미로 쓰이는 분류사는 다음과 같다.

필(匹), 수(首), 주(株), 대(臺), 권(卷), 편(篇), 쌍(雙), 촌(寸), 차(次)

넷째, 중국어에서 한국어보다 더 넓은 의미로 쓰이는 분류사는 다음과 같다.

구(具), 척(隻), 두(頭), 량(輛), 장(張), 좌(座), 건(件), 절(節), 문(門), 장(場), 반(班), 속(束), 층(層), 단(段)

그리고 아래에는 한국어 고유어 분류사와 대응되는 중국어의 분류사는 다음과 같다.

분(位); 마리(朝, 頭, 匹, 只); 그루·포기(棵, 株); 송이(朶); 자루(枝, 把); 알(顆); 덩어리·토막(塊, 段); 채(所); 칸(間); 벌(件); 쪽(頁); 가지(椿); 포대(袋); 살(歲); 끼(頓); 차례·바탕(陣, 場); 켈레(副); 무더기(堆); 묶음·다발(捆, 沓); 보따리(包); 꼬치· 꿩미(串); 뺨(拵); 섬·말·되(石, 斗, 昇); 원(元, 塊)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어와 중국어는 다른 語族(Language Family)에 속하기 때문에 본 논문은 분류사의 모든 면에서 비교하지 못하고, 오직 한국어와 중국어 분류사의 구조 특징, 의미와 용법에서 중점적으로 비교·설명하였다. 아쉬운 점이라면 더 심층적으로 문법기능이나 구조 특징을 연구하지 못한 것이 많이 남아있다. 따라서 이러한 점들은 앞으로의 연구 과제로 남기겠다.

참고 문헌:

-저서

- 고영근·남기심(1987) 『표준국어문법론』, 탑출판사.
김민수·이기문(1970) 『표준문법』, 어문각.
서정수(1996) 『현대국어문법론』, 한양대학교 출판원.
서태룡(1998) 『어법연구와 자료』, 태학사.
이승녕(1968) 『문법』, 을류문화사.
이희승(1961) 『새 고등문법』, 일조각.
_____(1976) 『새중학문법』, 일조각.
채완·이익섭(1999) 『국어문법론 강의』, 학연사.
최재희(2004) 『문법론』, 태학사.
최현배(1937) 『우리말본』, 정음사.
郭先珍(1987) 『現代漢語量詞手冊』, 中國和平出版社.
黎錦熙(2000) 『新著國語文法』, 商務印書館.
呂叔湘(1982) 『中國文法要略』, 商務印書館.
劉月華(2002) 『實用現代漢語語法』, 商務印書館.
馬建忠(1998) 『馬氏文通』, 商務印書館.
王 力(1985) 『中國語語法理論』, 商務印書館.
邢福義(2003) 『漢語語法三百問』, 商務印書館.

-사전

- 신기철·신용철 편(1989) 『새 우리말 큰사전』, 삼성출판사.
박성훈 편(1998) 『단위어사전』, 민중서림.
呂叔湘(1980) 『現代漢語八百詞』, 商務印書館.
漢字大字典編輯委員會(1993-6) 『漢字大字典』, 四川辭書出版社.

-논문

- 곽추문(1997) 한국어 분류사 연구, 성균관대 박사학위 논문.
노동선(1987) 量詞考, 외국어대학교, 『중국어문제연구소』 10.
서정수(1969) 국어 의존명사의 변성문법적 분석, 『국어국문학』 42·43 합병호.
송문려(1998) 현대 한국어와 중국어 분류사의 대비 연구, 성균관대.

- 오상룡(1994) Koeran Numeral Classifiers: Semantics and universals, 태학사.
- 유동준(1983) 국어 분류사와 수량화, 『국어국문학』 89 국어국문학회.
- 유주명(2007) 중국인의 한국어 학습상 분류사 오류연구, 원광대학교학원.
- 이근효(1984) 중국어의 양사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논문집5.
- 이은경(2000) 중국어 분류사연구, 이화여대 교육대학원.
- 임동훈(1990) 현대 국어형식 명사연구, 『국어연구』.
- 임홍빈(1979) 複數性和 複數化, 『韓國語學論業』, 공민대.
- _____ (1991) 국어 분류사의 변별기준에 대하여, 『문법연구의 심층3』, 태학사.
- 정제한(1998) 단위명사, 『문법연구의 심층3』, 태학사.
- 조용상(1997) 국어 수량사구의 통시적 고찰, 『진단학보』.
- 주 빈(2006) 한국어와 중국어의 수량사 구성 비교, 광운대 대학원.
- 채 완(1982) 국어 수량사구의 통시적 고찰, 『진단학보』.
- _____ (1983) 국어의 수사 및 수량사구의 유형론적 고찰, 『어학연구』 19-1, 서울대 어학연구소.
- _____ (1987) 국어 어순 연구, 탑출판사.
- _____ (1990) 국어 분류사의 기능과 의미, 『진단학보』.
- 최여진(2004) 중국어 양사와 한국어 분류사의 대조연구, 한국외국어대 대학원.
- 한경희(2002) 중한 명량사의 대비연구, 『제남대학학보』 12-3.
- 한송화(1999) 수사와 수량사구, 연세대 언어정보 개발연구원.
- 허 벽(1987) 현대중국어양사연구, 연세대 인문과학연구소, 『인문과학』 58.
- 郭紹虞(1979) 漢語語法修辭新探, 商務印書館.
- 關 湘(1998) 淺析漢語量詞的特点及其運用, 廣州師範學院漢語口語教研室.
- 靳葆强(2006) 韓漢量詞句法語義功能對比, 濟南大學外國語學院韓國語系.
- 呂叔湘(1982) 中國文法要略, 商務印書館.
- 劉世儒(1962) 魏晉南北朝個體量詞研究, 『中國語文』 10·11號.
- 王希杰(1990) 數詞·量詞·代詞, 北京人民教育出版社.
- 張志公(1957) 暫漢語教學語法系統”簡術, 人民教育出版社.
- 丁聲樹(1979) 現代漢語語法講話, 商務印書館.
- 朱德熙(2003) 漢語講義, 商務印書館.
- 周 仁(1981) 量詞點滴, 『語文學習』.
- 胡明揚(1996) 詞類問題考察, 北京語言學院出版社.
- 胡 附(1988) 語法研究与探索, 北京大學出版社.